



[해설] 메자닌펀드의 역습  
깜깜이투자  
손실 눈덩이 '펀드런'  
03



Economy

코스피	코스닥
2019.10.11	2019.10.11
2028.15	634.73
(-18.10)	(-0.68)
금리 (연평균)	환율 (원/달러)
1.28	1196.20
(+0.01)	(+3.10) (10일)

# 임기종료 함께 사라질

20대국회 슬픈자화상

## 법안 1.5만건 역대최대

20대 국회 '조국 공방'만 가열  
자동폐기 6개월도 채 안남아  
'역대급 낙제점' 오명 불가피  
대량 통과 땀 '졸속처리' 파장  
경기악화 속 재계·여론 실망감

20대 국회 계류 법안 1만5000건의 자동 폐기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비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조국 정국'으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20대 의회 계류 법안은 10일 오전 기준으로 총 1만5748건에 달했다. 이번 의회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앞서 2016년 5월 29일 임기를 종료한 19대 국회의 자동 폐기 법안은 9809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년도 12월 계류 법안은 약 1만건으로, 임기 종료 6개월을 앞두고 200여개의 법안을 더 처리했다.

이번 국회의 경우 매달 1700건 이상의 법안을 심사해야 오는 12월까지 전 임 국회 수준에 겨우 맞출 수 있다. '역대급 낙제점'이라는 오명을 쓴 이유다. 법안을 대량 통과시키더라도 '졸속 처리' 비난이 기다리고 있다.

법안 처리 양으로만 의회를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입법 심사를 중점으로 하는 각 상임위원회 내 소위원회 80%가 매달 2회 이상 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쟁을 이유로 현안을 뒷전으로 미뤘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올해 9월 정기국회는 이번 의회의 임기 중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여야는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10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국정감사 중반에 돌입했다. 이달 28~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회는 오는 12월 10일 끝난다.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내년 4월이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를 끝으로 '총선 정국'에 접어들는다. 법안 처리 기회는 사실상 두 달 남은 실정이다.

관건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와 '퇴진' 사이에서 여야가 얼마나 협치하는지 여부다. 실제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 7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조국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자리까지 보이콧(불참)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3면에 계속>**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박문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이 지난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예방 당시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상생협력 MOU 서명자, 흥남기 경제부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함께 '디스플레이 강국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퀀텀닷에 13조... JY, 디스플레이 "퀀텀점프"

### 삼성전자, QD사업 동큰 투자 발표 아산1캠퍼스 L8생산라인 일부 전환 2021년 65인치 QD디스플레이 생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4월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133조원을 투자한 데 이어,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며 일자리 창출과 삼성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0일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차세대 프리미엄 TV 시장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QD(퀀텀닷, 양자점 물질)디스플레이' 사업에 총 13조 1000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 대형 LCD를 생산하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 L8 생산라인의 일부를 'QD 디스플레이' 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시설투자에만 10조원이 투입되고, 차세대 기술 개발 등에 3조1000억원이 들어간다.

'Q1' 라인으로 명명된 이곳에서는 초기에 65인치 초대형 QD 디스플레이 패널을 월 3만장 수준으로 생산하고 이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라인은 우선 초기 3만장(8.5세

대) 규모로 2021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65인치 이상 초대형 'QD디스플레이'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8세대 LCD 라인을 단계별로 'QD' 라인으로 전환하며, 2025년까지 생산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QD' 신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기존 LCD 분야 인력을 'QD' 분야로 전환 배치하는 한편, QD 재료 연구와 공정개발 전문 인력도 신규로 채용할 방침이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신규 채용 이외에도 5년간 약 8만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QD' 개발 초기부터 부품 공급망 안전화를 통한 전후방 협력생태계도 구축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공급망 안정화 ▲원천기술 내재화 ▲부품경쟁력 제고 ▲신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소재·부품·장비 등 국내 후방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삼성디스플레이는 잉크젯 프린팅 설비, 신규 재료 개발 등 QD디스플레이 양산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 업체들과의 파트너십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국내 디스플레이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대학들과 함께 '디스플레이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산학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QD 디스플레이' 투자 결정은 이 부회장의 과감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를 등에 업은 BOE를 비롯한 중국 LCD 업체들은 8.5세대 공장을 돌리는 한국 기업들보다 유리한 10.5세대 라인을 돌리며 LCD의 가격을 급락시켰다. 이 때문에 삼성디스플레이 입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사업 전환이 필요했다. 그러나 중소형 OLED에도 2년간 10조원 이상이 투자될 예정이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 수십조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총수이자 오너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투자에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충남 아산 탕정 공장을 찾아 사장단 회의를 열고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지금 LCD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QD 디스플레이' 투자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유색페트병 금지 '자원재활용법' 눈앞... 주류업계 어찌나

### 12월 25일부터 개정안 시행 소주, 무색으로 변경 가능하지만 맥주는 자외선 등으로 변질 위험

주류업계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소주와 맥주 병 등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변경 후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유색 페트병은 더 사용할 수 없으며, 무색으로 바뀌어야 하고 라벨도

제거할 수 있는 접착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 계도기간은 9개월이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꿔 시중에 유통을 시작했다. 참이슬 페트병은 400ml, 500ml, 640ml, 1800ml 등이다. 전 구성 모두 무색으로 교체, 순차적으로 판매될 전망이다.

롯데주류도 '처음처럼' 400ml, 640ml, 1000ml, 1800ml 페트병이 이달 중에 모두 무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신세계그룹이 인수한 제주 소주는 2017년에 '푸른밤' 소주를 무색 페트병으로 선보였다. 당시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업계에서도 소주의 경우 무색으로 페트병을 바꿔도 신선도를 헤치거나 변질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맥주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맥주의 경우는 갈색 페트병을 주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색으로 바뀔 경우 맥주는 직사광선, 자외선 등으로 인한 품질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 있기 때문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주는 페트병을 무색으로 변경해도 변질에 위험이 없다"며 "맥주의 경우 직사광선, 자외선 등으로 인한 품질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내 전체 맥주 판매량의 약 16%가 페트병에서 나올 정도로 페트병 제품은 매출 기여도가 높다. 이에 맥주 페트병 교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된다면 업계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페트병 형태의 대용량 맥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출시하고 있어 페트병 색깔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참고할 사례가 없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는 연말부터는 전면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예방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맥주를 갈색병으로 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 빛이 투과되면 안되기 때문이다"며 "(무색 페트병으로 교체 시) 품질 문제가 가장 크다. 당국에서도 알고 있으며, 현재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갈색 페트병은 3중막 복합재질로 나일론과 페트의 접합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재활용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생하고 재생원료로 가공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자원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나서 갈색 맥주 페트병 퇴출을 추진해 왔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



# “대학 문닫기 직전, 한결같이 ‘임금체불’ 있었다”

교비횡령 등 운영자 부정비리에 12개 대학 폐교, 총 800억 체불 ‘혁신 지원방안’ 사후대책 그쳐 “심각한 체불뎀 감사 실시해야”

현재 임금체불이 이뤄지는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사전조사를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직원 임금체불은 기존 폐교대학이 문을 닫기 전 공통적으로 보였던 특징이기 때문. 폐교 후에는 교직원 등이 감당해야 할 피해가 큰 만큼 교육부가 폐교 위기에 직면한 대학을 사전조사해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폐교대학 징조는 ‘임금체불’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운영자의 부정·비리와 교직원 임금체불로 문제가 불거졌던 동부산대학교가 최근 자진 폐교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2년부터 폐교한 사립대는 12곳으로, 지난해에만 4개 대(대구미래



동부산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대·대구외대·서남대·한중대)가 문을 닫았다.

고등교육연구소 대학교육연구소는 이 대학들의 공통점은 폐교직전 교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대학 교직원 임금 체불 현황’ 자료

에 따르면 폐교된 대학의 교직원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의 총 규모는 8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대 체불임금이 약 430억원, 서남대 체불임금은 330억원에 달한다. 한중대와 서남대의 폐교 당시 교직원 수는 한중대 166명(교원 124명·직원 42명), 서남대 404명(교원 346명·직원 58명)이다.

박경미 의원은 “이들 대학들은 예외

없이 교비횡령 등 대학운영자의 부정·비리를 겪었다”면서 “이들의 부정·비리는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의 손실을 초래했다. 결국 그에 따른 고통은 대학구성원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에서 동부산대학교의 횡령액을 변제하면서까지 대학을 인수할 주체를 찾기는 힘들다는 시선이 많다. 이미 ‘사양산업’이라고까지 불리는 대학 사업에 손을 내밀 구원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 ◆‘임금체불’ 대학…교육부, 사전조사 나서야

이를 해결할 방법은 교육부의 ‘대학 혁신 지원방안’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교육부가 밝힌 해당방안이 ‘사후대책’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후속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폐교대학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교직원 임금체불 내용을 정리해 기록물을 보존하겠다는게 골자

다. 교육부는 폐교 대학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 이하로 처분가능하도록 별도기준 마련해 ‘국고로 귀속되는 폐교대학 잔여재산 활용’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외에도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다만 이 대책은 폐교 이후에 이뤄지는 사후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대교연은 “대학구성원의 고통과 부실운영의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영근 복잡한 과제인만큼 잔여재산 처리 등의 ‘사후대책’을 세우기 전에 ‘사전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임금체불 현황을 파악하면 폐교 위기에 몰린 대학들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임금체불 상태가 심각할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대학운영자가 교비회계에 손실을 미친 정황이 확인되면 손실보전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 외국인직접투자 4.8% ↑… 5분기 만에 반등

3분기, 36.1억불… 누적 135억불을 외국인투자 200억불 달성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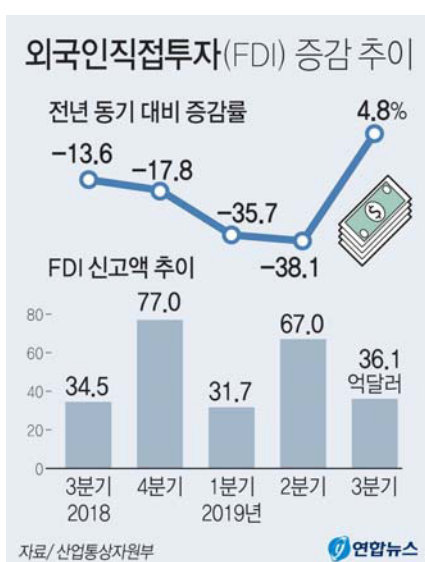
지난3분기(7~9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하면서 5분기 만에 반등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하락 전망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비교적 선방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외국인투자 200억달러 5년 연속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분기 FDI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한 36억1000만달러(약 4조 3000억원)를 기록해 4분기 연속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올해 FDI 신고액 누적실적은 134억9000만달러(약 16조 1000억원)를 기록해 연말로 갈수록 투자가 늘어가는 통상적인 추세 등을 감안하면 200억달러 목표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글로벌 FDI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



은 수준이었던 2018년에 비해 소폭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신산업 분야 FDI는 15억달러로 1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하는 등 외국인투자가 계속 다변화되고 고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 업종은 첨단소재·부품, 인공지능(AI), 핀테크 등을 말한다.

일본 수출규제 속에 소재·부품 분야 글로벌 기업들의 대한민국 투자 관심도 지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작기계 업계 올 수주 1603억… 41% ↓

수출수주 953억… 47% 급감

세계 경제 성장 둔화 흐름 속으로 대내외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공작기계 업계의 불황이 심화되고 있다. 내수와 수출 수주 모두 감소한 가운데 특히 공작기계 업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자동차 업계에서의 수주도 크게 줄어 업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내다봤다.

10일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가 발표한 ‘2019년 7월 공작기계 시장동향’에

따르면 7월 공작기계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41% 감소한 160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수출수주는 953억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47.4% 줄었다. 공작기계 수출수주는 올해 들어 처음 1000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내수 수주도 65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4% 줄었다.

공작기계협회는 공작기계 산업 부진의 원인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으로 내수 시장에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배한진 기자 ericabae1683@

## 5G 자율주행차 마곡 일반도로 달렸다

LG유플러스, 기술공개 시연 원격호출·차량 영상전송 등 중심

LG유플러스의 5G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렸다.

LG유플러스는 10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G-V2X(차량·사물간 통신) 기반의 일반도로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공개 시연했다.

5G-V2X를 탑재한 상용차가 자율주행으로 통제되지 않은 일반도로를 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시연은 출시를 앞둔 LG전자의 5G-V2X 통신단말과 마곡 일대에 구축된 LG유플러스의 5G 통신망 및 자율협력주행 플랫폼(관제센터, 다이나믹 맵, 정밀측위 등)으로 더욱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5G-V2X 자율주행 시연은 현대 자동차의 상용 모델 ‘제네시스 G80’을 기반으로 했다. 자율주행차는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일대 일반도로 2.5km 구간을 15분간 주행하며 6가지 핵심 기술을 선보였다.

실제로 시연은 ▲자율주행차 원격 호출 ▲선행차량 영상 전송 ▲무단횡단 보행자 감지 ▲긴급차량 접근 알림 ▲비가시영역 ‘지오펀싱(지리적 울타리)’ 대응 ▲다이나믹 맵 기반 사고현장



LG유플러스 및 LG전자 관계자들이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5G-V2X 자율협력주행 시연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회피 등 교통 체계 전체의 진화를 나타내는 기술 중심으로 진행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장면은 시연의 시작인 ‘원격 호출’이었다. 이날 시연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자율주행차를 탑승 지점으로 이동시켰다. 자율주행이 일상화되면 고객들은 이처럼 앱을 통해 자동차를 호출할 수 있게 된다.

본격스마트 교통 시대에는 탑승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자율주행 센서가 인지 불가능 순간도 사전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주변 지능형CCTV로 보행자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다이나믹 맵을 통해 사각지대가 조금이라도 발생할 시 스스로 주행 속도를 낮춘다.

또한 자율주행차는 횡단보도에서 신호와 상관 없이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를 사전에 감지, 즉시 정차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율주행차의 카메라 센서는 통행신호인 녹색불을 확인했지만, 주변 지능형CCTV로부터 받은 무단횡단 보행자 정보로 사고를 선제 대응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TAAS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만 4459건에 달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시연을 기반으로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일대를 5G-V2X 자율주행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전력수송 중 손실액 5년간 8조 넘어

손실금 매년 늘어 작년 1.8조 달해

전력 수송 중 발생한 손실액이 최근 5년간 8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어가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송·배전 전력 손

실 비용은 총 8조 2823억원이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변전소로 보내는 것은 송전, 변전소에서 가정 등 전기 소비자로 수송하는 과정은 배전이다. 송·배전 과정에서의 전력 손실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전력 손실량은 1935만 9355메가와트어워(MWh)로 1조 8521억원의

손실금이 발생했다. 전년 1879만 977MWh보다 56만 9258MWh 더 손실한 수치다. 손실액도 2114억원 증가했다. 송·배전 손실량은 2015년 1797만 9210MWh에서 3년째 증가세다. 손실액은 2016년 1조 5336억원에서 2년 연속 늘었다.

어 의원은 “송전탑 등 송전설비 증가로 전력 손실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사모펀드 규제 필요로 입장 선화... 공짜점심은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사-투자자 양측 책임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문제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 측면에서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던 소신이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부에 있을 당시 기관투자자는 스스로 검토·투자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까지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금융위원장이 되면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청문회 때도 이 같은 생각을 피력했다”며 “그러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등 사모펀드 악재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됐고, 서서히 사모펀드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소비자 측면서 제도개선”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아전에 있으면서 평소 사모펀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우리나라가 은행 위주 금융시장이 성장해 새로운 벤처나 창업아이디어 등을 할 여건이 안 된다. 자본시장으로 돈을 돌려야 벤처 등이 육성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가

DLF 손실사태 등 문제 많아 제도 허점 촘촘하게 개선 투자자 ‘자기 책임’ 강조 DLF 지위고하 엄중 조치 라임자산운용 시장불안 대응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었고 저금리시대에 투자자에게 조금이나마 나은 이자수익을 주는 기회도 제공했지만, 지금은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20년 후에 되돌아봤을 때 최근의 사태가 있어 사모펀드 시장이 발전할 수 있었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LF 투자는 공동 책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외금리 연계 DLF의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투자는 자기책임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은 위원장은 “투자하는 분들도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금리 시대에 정기예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으려고 DLF나 리츠 등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투자자에게도 책임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DLF사태에 대한) 책임은 공동 책임이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불안전 판매에서 설명 의무,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 좋지 않으나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기 여부는 우리가 ‘맞다, 아니다’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 이 건 형사처벌이면 검찰과 법원에서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불안전판매 여부만 금감원에서 (검사)해온 것이다. 내가 여기서 ‘사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DLF 검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중 조치”가 판매 창구인 우리은행·하나은행의 행장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원론적 얘기고, 당연한 것”이라며 “책임의 범위가 밝혀진 게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설계·운용·판매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조치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또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를 중단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

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며 “시장 불안요인을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이날 은 위원장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꼽았다.

은 위원장은 “오늘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접수가 시작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의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금년 중 신규인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과 금감원 심사결과를 토대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두 곳의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적정성에서, 키움뱅크는 혁신성에서 미흡판정을 받았다.

은 위원장은 또 다시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두 불허하는 사례가 없지 묻는 질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며 “개인적으로 인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국의 노력에도 시장은 여전히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며 “금융위, 금감원 공동으로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올해 중 신규인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메자닌펀드의 역습... 깜깜이투자 손실 눈덩이 ‘펀드런’

6200억 규모 펀드 환매 중단 환매요청 빚발→유동성 부실 환매시기도 고지 안해 불안↑ 관계자 “사태 확산 가능성도”



을 끝낸 저녁께 관련 사실을 고지하면서 투자자들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이틀 밤을 기다려야 했다.

판매사들도 날벼락을 맞았다. 현재로서는 투자자들의 클레임(비난)을 수용하면서 자산운용사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행히 일각에 알려진 것보다는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펀드 물량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순 없지만 현재는 리테일 쪽 잔고가 670억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여기에 기관 물량을 빼면 개인투자자 몫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단위 리스크 될까?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결정으로 펀드에 묶인 돈은 약 6200억원 가량이다. 환매 중단이 선언된 모펀드 ‘플루토 FID-1호’와 ‘테티스 2호’ 펀드에 연동된 자펀드 중 개방형 4400억원, 폐쇄형 1800억원의 펀드가 환매 중단된 상태.

문제는 현재의 유동성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1조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플루토 펀드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노출돼 있고, 플루토 펀드와 연동된 3조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자펀드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메자닌 채권은 통산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만기로 가진다. 해당 기간 이후 전환가격 대비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 전환 후 매도를 통해 투자자는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의 주가가 빠지면 상황이 어렵게 된다. 원금이라도 돌려받으면 다행인데, 이마저도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 피해는 투자자의 몫이 된다.

라임자산운용은 현 시점에서 회수에 돌입하는 것은 펀드 수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환매를 일단 중지한 상태다.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거나, 원금이라도 받아서 더 큰 손실을 막아야 하는 결정에 놓이게 됐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다. 현재 라임자산운용으로부

터 환매 계획에 관련된 대책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라임 운용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모험자본 육성, 벤처펀드 등 열풍으로 지난해 표면이자율 0% 메자닌이 불티나게 팔렸다”면서 “그 가운데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는 부실한 자산까지 펀드에 담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우려되는 점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라임운용의 운용자산(AUM·설정원본+계약금액)은 4조9319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8189억원)과 비교해 2조1130억원 증가했지만 올 6월 말(5조3934억원)과 비교하면 4615억원 감소했다.

/손연지 기자 sonumji301@

>> 1면 ‘20대 국회 슬픈자화상’서 계속

## “韓 경제 버려진 자식” 재계도 쓴소리 빚발

박용만 회장 “현안 논의 기억도 안나”

경기 악화에도 정치권이 요동치는 민심 잡기에 몰두하면서 여론은 물론 재계에서도 토로가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질타다. 박 회장은 지난달 18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요즘 우리 경제가 버려지고 잊힌 자식 같다”고 정부와 정치권을 질타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민관정(민간·관료·정치)이 총력 대응해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현안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게 박 회장 평가다.

박 회장은 지난 6월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일일이 만나 “정치가 기업과 국민의 살림살이를 붙들어야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국회는) 경기 침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본격 실시한 지난 7월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내 나라 말을 못 쓰던 시절에도, 심지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리는 기업을 지켜왔다”며 “한국-일본 간 기업이 약속과 거래를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쟁 속에서도 책무와 책임은 다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삼성디스플레이 투자·상생협력 협약식

## 수천억 적자-중국 맹추격 속 미래투자 '오너의 결단'

SAMSUNG

삼성전자

미래 먹거리 선점 위한 투자  
대내외 악재에도 차질없이  
'초격차 전략' 유지 재차 주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자사업과 시스템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에 이어 디스플레이 기술에 톡톡 투자를 단행하며 미래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6년 삼성전자 경영 전면에 나선 후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있다. 2016년 11월 자동차 부품 사업 진출을 위해 10조 가까운 자금을 투입해 하만을 인수합병(M&A)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주춤했지만 지난해 집행유예로 나온 이후 다시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4월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반도체 비전 2030'을 공개, 133조원의 투자를 진행했다. 지난 9월에는 일본 통신사 KDDI에 5G 통신장비 공급을 확정했다. 약 20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0일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신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이 부회장의 미래투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까지 확장됐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0일 충남 아산의 탕정사업장에서 총 13조1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는 이 부회장의 중장기 투자·고용 방안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지난해 초 한소심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대규모 투자 방안을 계속 내놓으며 '미래

먹거리' 발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석방 이틀 후인 지난해 2월 7일 삼성전자가 대표이사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평택 반도체 단지에 제2생산라인 건설을 위한 예비투자 안건을 의결한 게 '신호탄'이었다.

이전부터 검토되던 사안이었으나 이 부회장 석방 직후 이를 전격적으로 결정하면서 '옥중 경영구상'을 곧바로 구체화할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런 관측을 증명이라도 하듯 같은 해 8월에는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

해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단일 그룹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고용 방안이었다.

특히 인공지능(AI), 5G, 바이오, 전장부품 등 '4대 미래 성장사업'에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어 올 4월에는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생산기술 확충에 총 133조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만 5000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반도체 비전 2030'을 선포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하락,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 규제, 자신의 재판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검찰수사 등 대내외 악재에도 앞서 발표한 투자·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전자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중장기 투자·고용 계획을 언급한 뒤 "흔들림 없이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면서 '초격차 전략'을 재차 주문했다.

또 같은 달 경기도 수원사업장에서

주재한 IT·모바일(IM) 부문 사장단 회의에서도 "어떤 경영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 투자 계획도 "긴 안목으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 부회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TV 시장점유율 13년 연속 1위, 스마트폰용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80%대 등의 현 상황에 만족할 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선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주마가편'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에 R&D 비용으로 10조원 넘게 투입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계 관계자는 "투자는 기존 사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신산업 분야에서 리더십을 선점하기 위한 성장 전략의 기초"라면서 "이 부회장이 마지막 판결인 파기환송심을 앞둔 상황에서도 국내외에서 경영행보를 이어가려는 동시에 잇따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는 것은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文 대통령 "디스플레이 산업,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 출발점"  
"기업들의 노력에 정부도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원 규모 신규 투자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개최된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이번)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열린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보고회에서 해양신산업 분야 인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7년간 400억

원 대규모 예산의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투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테스트베드' 천안 유치, ▲향후 4년간 2000명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산업인력 양성 등을 약속했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을 만들자"는 (문 대통령) 말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됐다"며 "세계 경기가 둔화하고 여러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차세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부회장은 "약속드렸듯이 차세대 핵심 대형 디스플레이에만 13조원 이상의 투자를 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인의 소임을 다하겠다"라며 "문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함께 나누고 같이 성장하자'는 말씀이야말로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삼성디스플레이의 투자 협약식 참석 후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로 충남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과 충남경제인들은 오찬 자리에서 철도·해양수산 등 대정부 건의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 후 충남도청에서 '해양수산 신산업 발전전략(충남 신미래전략)'을 양승조 충남도지사로부터 직접 보고 받기도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 고속도로 휴게소 제로페이 도입 5개월

## 하루 평균 이용량 1건도 안돼... "세금 낭비"

도입 휴게소 24곳 결제 일평균 0.35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도로공사 전국 2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하루 평균 이용량이 1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조한 이용 실적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서비스를 적용하는 휴게소가 늘어날 예정이어서 세금 낭비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김상훈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

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후 5개월간 제로페이를 도입한 전체 휴게소 24곳의 월평균 결제 건수는 10건, 일평균 결제 건수는 0.35건이다. 제로페이 결제 전체 건수는 1245건으로 전체 결제 건수 1058만건의 0.011%다. 화성휴게소를 제외하고는 23곳 모두가 5개월간 하루 평균 1건도 제로페이가 사용되지 않았다. 충주휴게소의 경우 5개월 동안 단 한 명의 이용객도 없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 국민연금 月 130만원 이상 수령자, 3년 새 4배

소득 높고 가입 기간 긴 수급자 증가

국민연금을 월 13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3년 새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30년을 넘어 안착하면서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긴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6년 336만4000명에서 2019년 6월 386만7000명으로 14.9% 증가했

다.

노령연금 금액별로는 같은 기간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94만8000명에서 85만 9000명으로 줄었다. 반면 20만원 이상 수급자는 수급 금액별로 모두 증가했다.

특히 13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증가 폭이 컸다. 2016년 1만5660명에서 2019년 6월 6만7409명으로 4.3배 늘었다.

고액 수급자일수록 더 큰 폭으로 증가해 16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수급자는 같은 기간 330명에서 6074명으로 18.4배,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0명에

서 44명으로 늘었다.

노령연금 금액이 많은 구간일수록 가입 기간 증가 폭도 컸다. 노령연금액과 가입 기간 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의미다.

올해 6월 기준 노령연금 금액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을 보면 ▲20만원 미만은 72.4개월 ▲20만~40만원은 134.2개월 ▲40만~60만원은 193.2개월 ▲160만~200만원은 325.5개월 ▲200만원 이상은 299.9개월 등으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령연금 금액이 많았다.

/김희주 기자 hj89@



# 실적정체 지방은행, 핀테크 컬래버로 수익창출 '골몰'

전북·광주 등 5대 지방은행  
당기순이익 6880억... 2.6% ↓

핀테크 연계 모바일 서비스 등  
디지털 금융강화로 한계 돌파



부산은행의 썸뱅크. 서비스이용이 편리해 지역고객보다 타지역 고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NK부산은행

지역경기 악화로 실적부진이 이어지자 지방은행들이 은행 간 핀테크(금융기술) 경쟁 시장에 가세하고 나섰다. 특히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이 확대되고 핀테크 부수업무도 가능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개발에 나서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지방은행이 의존했던 이자 수익 부문이 비이자수익(수수료수익)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으로 분석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 등 5대 지방은행의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총 688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7064억원) 대비 2.6%(184억원) 줄었다. 시중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농

협·기업)이 6조698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전년대비 0.6%(406억원) 줄어든 것과 비교해도 대폭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5대 지방은행은 신용대출 대비 금리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린 것이 악영향을 미쳤다.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총 80조7140억원으로 2017년 76조367억원에서 2018년 76조9763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연체율은 평균 0.73%를 기록하며 시중은행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금융을 활성화할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은행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 지역 적극 진출과 디

지탈 금융 강화 등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은 새로운 수익원으로 핀테크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8일 금융위가 발표한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단순히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핀테크 업무를 직접 운영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대상은 '금융 고유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핀테크 기업'에서 '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금융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직접 부수업무로 운영할 수 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기고, 비대면으로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내부에서도 체질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껴왔다"며 "핀테크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부수업무로 운영하게 되면 핀테크 기술과 고객 네트워크를 접목시킬 수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은행은 핀테크기업과 연계해 모바일 전용은행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부산은행의 썸뱅크는 전화번호만 알아도 송금이 가능하고, 포인트를 통

한 적금 불입, 대출이자 납부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지역고객보다 타 지역 고객이 더 많은 상태다. 대구은행은 IM뱅크와 IM샵을 운영해 소상공인에게 매출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로 지방은행이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방은행의 주수익원이던 이자이익의 부문이 수수료이익(비이자이익)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지역영업을 확대하고 시금고 경쟁에 뛰어들수록 지방은행의 이자수익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업무대행을 통해 수수료수익을 높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정보 등을 분석한 자산서비스 등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수료를 현실화할 수 있어 주 수익원이던 이자이익의 부문은 수수료이익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신한카드 '창립 12주년 자원봉사대축제' 개최 사회와 함께 꿈꾸는 초협력시대 연다

11월 말까지 임직원·가족들 참여  
ESG 관점 20여개 프로그램 구성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신한카드가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사회와 함께 꿈꾸는 초협력 시대를 연다.

신한카드는 오는 11월 말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신한카드 창립 12주년 자원봉사대축제(이하 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카드 창립 12주년을 기념해 진행되는 이번 자원봉사대축제는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관점 하에 총 20여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약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과 연계해 업사이클링 기관인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폐자원 재생 활동을 추진하며, 서울식물원에서는 '십만개의 봄 프로젝트'를 통해 톨립화단을 조성하고, 남산야외식물원 등에서는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사랑의 빵 만들기'를 통해 소외아이에 나눔을 전달하고, 장기 입원 환아들을 위한 향균키트를 만들어 영·유아보건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 지역축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신한카드는 글로벌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만큼 해외 나눔 활동도 진행, 개발도상국에 신한카드의 캐릭터인 '판권'을 활용한 책가방을 전달해 아동 교육을 지원하며,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활동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헌혈증 기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역사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직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ESG의 내재화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

## 중금리대출 강자... 자산 8조시대 열었다

### 서민금융 기업리포트



#### ① SBI저축은행

상반기 순이익 1089억 달성  
이자수익은 3685억... 22% ↑

모바일 플랫폼 '사이다뱅크'  
높은 금리 내세워 젊은층 확보

SBI저축은행은 국내 저축은행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업계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SBI저축은행은 올 2분기를 마친 지난 6월 말 기준 총 자산 8조 18437억원을 기록하며 8조원 시대를 열었다. 같은 기간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의 자산규모(6조 136억원)를 감안하면 SBI가 한발짝 앞서 있는 저축은행 선두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일본 SBI그룹에 인수됐다. 이후 2014년 말 합병을 통해 당시 총 자산을 3조 8000억대로 확장시켰고 현재까지 꾸준히 업계 1위 자리를 지켜왔다.

최근 SBI저축은행의 실적은 중금

리대출이 한 몫 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108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이자수익은 368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2.1% 늘어난 수치다.

더불어 정부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도 무난한 실적이 전망된다. 실제 정부는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은행이 민간 중금리대출을 내줄 수 있는 자금만 있다면 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앞서 SBI저축은행은 중금리대출상품을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등 관련 분야에서 특화된 사업의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젊은층 고객확보에도 적극 나서면서 몸집을 더 불리고 있다. 젊은세대들이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특화된 만큼 고금리 상품, 접근성 높은 서비스 등으로 가입고객을

끌어들이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 모든 금융서비스를 간편인증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 '사이다뱅크'를 선보였다. 사이다뱅크는 높은 금리를 내세워 젊은층을 모으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입출금통장에는 조건 없이 2%의 금리를 제공, 인터넷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 서비스로 거의 모든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금리 높은 상품이 있는 곳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저축은행이 이같은 현상을 마케팅에 잘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에 출시한 공유형 적금상품 '인맥적금'도 젊은 고객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었다. 인맥적금은 휴대전화 연락처에 있는 지인이 상품에 가입하면 기존 가입고객과 지인에게 자동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기존 다른 적금 상품과 달리 별도의 추천행위를 하지 않아도 우대금리가 제공되고 중도해지해도 기본금리를 100%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토스, 월간 활성 사용자 1000만명 돌파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5년 2월 토스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약 4년 반만의 성과다.

월간 활성 사용자(MAU·Monthly Active User)는 사용자의 앱 사용 빈도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 중의 하나로, 월간 앱 순 사용자 수를 집계해 측정한다.

현재 토스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3400만건 이상이며, 누적 가입자는 1500만명을 넘어섰다.

토스는 2015년 공인인증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선보이며 간편 송금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 왔다. 10월 현재 토스의 누적 송금액은 60조원을 넘어섰다.

/홍민영 기자

## 신한은행, 콜센터 상담 품질 자동평가

업계 최초 시스템 구축  
상담 서비스 향상 기대

신한은행은 매일 4만건 이상 발생하는 고객 전화상담 내용을 분석해 콜센터 상담 서비스 수준 향상과 상담 직원의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콜센터 상담 품질 자동평가 시스템'을 은행권 최초로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자체 평가팀에서

녹취한 상담 내용을 샘플링 분석해 상담 품질을 평가해왔으나 이번에 기존 TA(Text Analytics)시스템을 고도화해 상담 내용을 텍스트화하고 형태별로 분석함으로써 콜센터 상담 품질 자동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콜센터 상담 품질을 측정하는 16개 주요 항목에 대해 상담 직원 신속하게 품질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상담 직원의

상담 내용과 전화응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자료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수치화해 고객 상담 품질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고객 상담 중에 발생하는 잠재민원요소를 신속히 파악해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한국의 우수 콜센터 16년 연속 선정, 콜센터 품질지수 시중은행 1위 등 은행업계 최고의 콜센터 상담 품질을 이끌어왔던 노하우에 이번 시스템 구축이 더해져 콜센터의 전체 상담 서비스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민영 기자



# “끝없는 도전-상생” 김승연의 ‘가지 않은 길’ 시즌Ⅱ

(한화그룹 회장)

## 한화그룹 창립 67주년

창립 맞아 전사적인 도전·혁신 당부  
상생·안전제일주의 핵심가치로  
내일 위한 투자와 고용 계획 추진

“끝없는 도전이 대체불가한 기업으로서 한화의 내일을 열어 갈 것입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그룹 창립 67주년을 맞아 전사적인 도전과 혁신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10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전날 창립 67주년을 맞아 서면으로 기념사를 발표했다. 도전자 정신을 주문하는 한편 상생과 안전제일주의도 그룹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로 지목했다. 김 회장은 “기존의 산업 생태계를 파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하는 혁신적인 도전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그들은 디지털 문명을 선도하는 비범한 발상과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공기준을 만들어간다. 보통 기업이라면 10년에 이를 성장할

단 1년 만에 뛰어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한화도 67년 전 누구도 가지 않은 길 위에서 혁명적인 미래에 도전했다”며 “화약 국산화를 시작으로 각 사업 분야에서 이뤄온 도전의 역사가 국가 경제의 기틀이 됐고 모두의 자부심으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김 회장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새 시대로 나아가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라며 “세상에 첫 걸음을 내디뎠던 초심으로 도전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그날의 뜨거운 새벽 정신으로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인재를 확보하고, 사업 간 시너지를 높여나가야 한다”며 “세상에 없던 제품과 기술·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끝없는 도전이야말로 대체불가한 기업,

한화의 내일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경쟁과 승리를 넘어선 상생과 동반”을 화두로 삼으며 사회 전 분야에 기여하는 소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상생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화의 존재 이유와 이윤 추구 방식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소비자와 고객, 협력업체는 우리의 수익 기반이 아닌 생존 기반”이라며 “이런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내일을 위한 투자와 고용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사회 구성원 공동의 번영에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아무리 수익성이 높아도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영위할 이유가 없다”며 “안전제일주의”도 강조했다.

그는 “안전경영은 업종을 불문하고 전 사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철칙”이라며 “안전에서만큼은 단 1%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흙은 강을 흐리게 할 순 있지만 바다를 흐리게 할 순 없고, 바람은 나무를 뽑을 순 있지만 산을 뽑을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눈 앞의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변화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더 큰 도약을 펼쳐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그룹 창립 67주년을 맞아 10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대규모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한다. 지난 8일에는 ㈜한화 옥경석 대표이사 등이 대전 유성 구 과수능가에서 배 수확을 돕고, 배와 배즙을 관내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신형 투싼, 가솔린 모델 엔트리 트림 추가

### 현대차 ‘2020 투싼’ 출시

현대자동차가 가솔린 모델의 엔트리 트림을 신설하고 고객 선호 사양을 확대 적용한 ‘2020 투싼’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형 투싼은 가솔린 모델에 신규 엔트리 트림인 ‘스마트’를 추가하며 가솔린 모델의 진입 가격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 가솔린 모델은 디젤 모델과 달리 중간 트림인 모던부터 구입이 가능했다.

최근 우수한 정숙성으로 가솔린 엔진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솔린 엔트리 트림 신규 출시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올해 1~9월 판매된 투싼 중 가솔린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지난해 연간 판매비중이었던 14% 보다 18% 포인트 상승했다.

신형 투싼은 기존 최상위 트림인 프리미엄을 대신해 동급 최고 수준의 사양을 갖춘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새롭게 선보였다.



현대차 2020 투싼.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유광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해 디자인을 차별화했으며 ▲스마트 파워테일 게이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등을 기본 적용했다. 또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과 LED 주간주행등 등 각종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화해 상품성도 강화했다.

이 외에도 현대차는 고객 판매 데이터를 분석,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옵션 조합을 패키지로 묶어 2020 투싼 구입 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 가격은 가솔린 1.6T 엔진 기준 ▲스마트 2255만원 ▲모던 2391만원 ▲인스퍼레이션 2898만원이며, 디젤 1.6 엔진 선택시 150만원, 디젤 2.0 엔진 선택시 199만원이 추가된다.

/양성운 기자 ysw@

## B tv 채널전환·실시간 방송 품질 개선

### SKB 모든 채널 ‘All IP’ 전환 추진

SK브로드밴드는 새로운 IPTV 품질 향상 솔루션 적용 및 실시간 모든 채널의 ‘All IP’ 전환 추진을 통해 고객들의 B tv 체감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All IP는 채널사업자의 시스템이 위치한 장소에서 영상을 H.264 코덱으로 인코딩 후 IP 신호로 고객에게 바로 전달 및 서비스되는 시스템 구조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이 2017년 말 상용화한 실시간 방송 자동복구 솔루션(MLR)과 채널전환시간 단축(FCZ)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품질향상 솔루션을 B tv에 적용했다. 이에 실시간 방송 시청 중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

는 끊김이나 멈춤 현상을 사전에 해결하고, 채널 변경 시 화면전환을 0.6~0.79초 이내로 할 수 있게 돼 TV시청 편의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적용할 솔루션은 다양한 사전 테스트 및 검증을 통해 채널전환 트래픽이 동시에 몰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상용화했다. SK텔레콤은 이 솔루션의 핵심 기술들로 국내 12건 및 국제 1건 등을 특허 출원했다.

또한 SK브로드밴드는 IPTV 최초로 실시간 방송 모든 채널에 All IP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B tv 운영시스템이 모여 있는 장소인 H/E(Head-End) 구조를 효율적으로 변경해 실시간 방송 송출시간을 단축했다.

/구서윤 기자

## 듀얼스크린은 기본, 3200만 화소 카메라까지

### LG V50S 씽큐 출시

콘텐츠 제작에 특화된 기능 강화  
구매 시 ‘LG 홈브루’ 증정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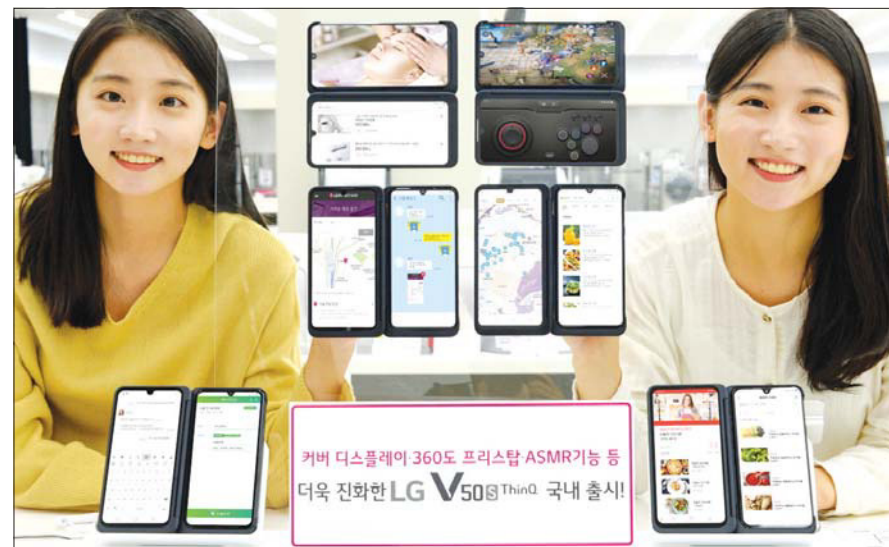
LG전자가 11일 이동통신 3사와 자급제 채널을 통해 전략 스마트폰 ‘LG V50S 씽큐(ThinQ)’를 국내에 출시한다.

출고가는 119만9000원이다. 색상은 ‘오로라블랙’ 단일로 선보이며 이후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전략 시장에도 순차 출시한다.

LG전자는 전용 액세서리인 LG 듀얼 스크린과 투명 젤케이스를 LG V50S 씽큐 제품 패키지에 포함해 기본 제공한다.

LG V50S 씽큐가 탑재한 3200만 화소 전면카메라는 후면카메라에 버금가는 성능을 낸다. 또 ▲1/480초 초고속 포착 ‘AI 액션샷’ ▲초고화질 저속촬영 ‘4K 타임랩스’ ▲격한 움직임에도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한 ‘스테디캠’ ▲마이크 감도를 극대화시키는 ‘ASMR’ 등 콘텐츠 제작에 특화된 기능들도 강점이다.

‘화면 내 지문인식’ 기능은 고객들이



LG전자가 11일 이동통신 3사와 자급제 채널을 통해 전략 스마트폰 LG V50S 씽큐(ThinQ)를 국내에 출시한다.

/LG전자

LG 듀얼 스크린을 360도로 완전히 켜진 상태에서 지문인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후면에 자리잡고 있던 지문인식 센서가 없어서 디자인 일체감도 높아졌다.

전용 액세서리 LG 듀얼 스크린이 적용한 2.1형 전면 알림창은 사용자가 커버를 열지 않고도 시간, 날짜, 배터리, 전화 수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LG V50S 씽큐와 동일한 6.4형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화면 몰입감이 높인다.

한편 LG전자는 LG V50S 씽큐 구매 고객들에게 프리미엄 수제맥주 제조기 ‘LG 홈브루’를 무상 증정하는 고객 이벤트도 진행한다. LG V50S 씽큐를 구매하고 간편결제시스템 ‘LG 페이’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온라인 톨렛 이벤트를 진행, 총 6대의 LG 홈브루를 증정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쌍용차, 중동 재공략... 사우디서 현지 조립 생산

### 사우디 SNAM사와 라이선스 계약

쌍용자동차가 주력 시장인 중동 시장 판매 회복에 나선다.

쌍용차는 사우디 내셔널 오토모빌스와 현지 조립 생산을 위한 제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단지에서 쌍용차 예병태 대표이사(왼쪽)와 SNAM사의 파드 알도히시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조립 생산을 위한 제품 라이선스 계약(PLA) 체결식을 가졌다.



예병태 쌍용차 대표이사(왼쪽)와 SNAM사의 파드 알도히시 대표 이사가 지난 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단지에서 현지 조립 생산을 위한 제품 라이선스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인 ‘사우디 비전 2030’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산업 육성 정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SNAM사는 이를 구

현하기 위해 주베일 산업단지에 약 10만㎡의 부지를 확보하고 자동차 현지 조립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또 SNAM사는 향후 주베일 산업단지 내에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원활한 현지 조립 생산 체계 구축은 물론, 국내 협력사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진출을 통해 양질의 부품 공급과 품질 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SNAM사는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을 2021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지 조립 생산해 향후 3만대 수준까지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2019 한국품질만족지수  
가정용가구 부문 8년연속 1위

표정있는가구 — **에 몬 스**

# 1위 선정 · 8년연속

## 2019 한국품질만족지수 선정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

수상기념세일 **30~10%할인**

~10.31까지 / [www.emons.co.kr](http://www.emons.co.kr) 참조



에몬스가구  
전속모델 전도연

아델



이모션20

루쏘

 **에몬스가구**



# AI 기반 美 자율차사에 전략 투자... 모빌리티 패권 확보 나서



운전자 정보 활용·고정밀지도 개발  
지난 9월 애플티브와 합작 회사 설립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자동차 최대 격 전지인 북미 시장에서 미래 모빌리티의 기반을 다지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취임을 전후로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협업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애플티브와 공동으로 미국 현지 합작 법인을 설립한데 이어 미국

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솔루션 업체인 네트라다인에 전략적 투자를 했다. 자율주행 분야의 추격자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현대차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10일 현대차 미국법인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센터인 현대크래들이 최근 네트라다인에 투자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네트라다인은 미국의 물류 업체 등의 차량에 장착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카메라 '드라이버아이'를 통해 전방충돌 경고 등의 ADAS 기능을 구현하며 도로와 운전자 행동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으로 네트라다인이 수집한 도로와 운전자 정보를 활용해 '레벨 3' 이상의 ADAS와 자율주행에 필요한 고정밀지도(HD 맵) 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상황에 맞춰 주행할 수 있는 레벨4 이상의 기술도 확보할 방침이다. 또 네트라다인이 수집한 데이터 등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에 사용되는 정밀지도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을 레벨 0~5까지 6단계로 구분하며 레벨 3은 운전자가 특정 상황에 개입하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인 애플티브와 손잡고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글로벌 업계에서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합종연횡이 활발한 가운데 유수의 완성차업체와 자율주행 기업이 별도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시 현대차그룹과 애플티브는 총 40억 달러(약 4조7800억원) 가치의 합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갖게 됐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현금 16억달러(약 1조9100억원)와 자동차 엔지니어링 서비스, 연구개발 역량, 지적재산권 공유 등 4억달러(약 4800억원) 가치를 포함해 모두 20억달러(약 2조3900억원) 규모를 출자했다. 현대차

그룹의 투자 규모는 연산 30만대 규모의 해외 공장을 2개 이상 건설할 수 있고, 외부업체에 투자한 사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자동차 본사.

## SK하이닉스 '글로벌 뉴스룸' 3개국어 제공

'기술·행복' 키워드의 콘텐츠 제공

SK하이닉스가 글로벌 고객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뉴스룸'을 오픈했다.

SK하이닉스는 창립 36주년을 맞아 10월 10일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구성된 글로벌 뉴스룸을 오픈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미국과 중국 고객은 물론이고 주주, 언론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앞으로 글로벌 뉴스룸을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SK하이닉스 뉴스룸은 '기술'과 '행복'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공한다. 우선 SK하이닉스의 제품과 기술을 비롯해 반도체 시장 트렌드를 소개하고, 전문가의 기고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회사 내 소소한 '행복'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해 뉴스룸이 SK하이닉스의 행복 소통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뉴스룸에서 보도자료 확인, 회사관련 사진 및 영상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고, 경영진 인터뷰와 채용정보를 비롯해 회사의 다

양한 소식도 접할 수 있게 된다.

영문 및 중문 뉴스룸은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각기 차별화된 콘텐츠로 운영한다.

영문 뉴스룸은 영어권 고객 및 해외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기술' 위주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새너제이에는 낸드플래시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SK하이닉스메모리솔루션스가 있어 현지의 기업 문화와 최신 기술 개발 동향도 소개할 예정이다.

중문 뉴스룸은 중국 우시와 충칭에 있는 생산법인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채널로 만들 계획이다. 현지 법인의 운영 현황과 지역 사회공헌 활동 등을 소개하고, 중국 구성원들의 소통 채널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국 각 지역과 홍콩, 대만 등에 있는 중화권 판매법인과 사무소의 생생한 현장 소식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중문 뉴스룸에 선보인 'SK하이닉스 패주본기'는 SK하이닉스 역사를 산수화를 기본 배경으로 무협지 형태로 소개해 현지인들의 호평을 받았다. /양성운 기자

## "5G 선점 비결,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

박정호 SKT사장, 獨 콘퍼런스서 연설  
"콘텐츠 소비 패턴 변화 주목해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한국이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을 선점한 비결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우선으로 꼽았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박 사장은 지난달 27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5Germany' 국제 콘퍼런스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5G 글로벌 리더가 되었는가'라는 주제의 화상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5G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 및 5G 생태계 내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주요했다"고 밝혔다.

5Germany는 독일 교통·인프라부 장관을 비롯해 BMW, 도이치텔레콤, 바스프(BASF), ABB그룹 최고경영자(CEO) 등이 5G를 통한 산업 혁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박 사장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해냈지만 초기 상황이 고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며 "고객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 LTE 때보다 약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가입자 수가 증가해 현재 약 300만 명"이라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지난 27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5Germany' 국제 콘퍼런스. /SKT

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 5G 고객은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40GB로, LTE 대비 약 4배 많으며 AR·VR, 클라우드 게임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용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콘텐츠 소비 패턴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연설 도중 전국 도심 속 공원에 개장한 'AR 동물원'을 깜짝 선보이며 초밀집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5G 특구를 곳곳에 조성하는 '5G클러스터' 전략을 소개하고 "AR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동물 없는 동물원'이라는 기

업 캠페인에도 나서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독일 내 다양한 기업들과도 5G 여정(Journey)을 함께 하면서 자동차 제조,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5G 협력을 제안했다.

박 사장은 "한국 내 독일차 수요가 지난해 약 16만대로, 한국 수입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독일차에 5G와 AI가 결합된 T맵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탑재하면 이전까지 없었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현대로템, 박람회서 미래 모빌리티 제품 선보

현대로템이 국내 최대 로봇박람회에 참가해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제품을 선보인다.

현대로템은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9 로보월드'에 참가해 미래 산업환경에 대응한 로보틱스 기술과 무인화, 모빌리티 기술 등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모빌리티 전문업체'를 주제로 민·군 무인차량 겸용다목적 무인차량인 세르파와 이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통제시스템을 비롯해 웨어러블 로봇 3종을 살펴볼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

세르파는 배터리를 이용해 구동되는 전기구동방식의 차량으로 근거리 및 원격 거리 통제장치를 통해 원격 조정이 가능한 무인차량이다. 차량 앞의 병사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주행 기능이 탑재돼 있으며 화력지원, 감시정찰, 물자 후송 등 목적에 따라 민·군에 다양하게



2019 로보월드에서 참가한 현대로템 부스 전경.

사용이 가능하다.

최대 속도 시속 30km를 발휘하며 냉각수를 활용한 수냉식 배터리 시스템과 통합 열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장거리 운행 및 사계절 운용이 가능하다. 또 공기가 필요 없는 에어리스 타이어를 적용해 험지나 전투에 사용시 펑크 날 위험이 없어 운용 손실이 없다.

또 현대로템은 현대차와 공동으로 개발한 HUMA(Human Universal Mobility Assist), ALAD(Active Lift Assist Device), H-프레임 등 3종의 웨어러블 로봇도 함께 선보인다. /양성운 기자

## SK(주) C&C, AI 장착 드론으로 가스관 감시

충청에너지서비스와 공동 개발  
산지·위험지역·광범위 구간 등

SK(주) C&C가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에 인공지능 눈을 단다.

SK(주) C&C는 SK E&S의 도시가스 자회사인 충청에너지서비스(주)와 함께 드론·주변 CCTV·모바일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위험 상황을 파악·경고하는 '에이든 드론관제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1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SK(주) C&C의 비전 AI(인간의 시각적 인식 능력을 재현한 인공지능) 솔루션 '에이든'과 연계한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지나 위험지역·광범위한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가스관 등의

감시 역할을 담당한다. 증강현실(AR)·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드론을 가스 등 안전관리 분야에 활용한 것은 국내 최초다.

에이든을 연계한 드론의 첫 임무 지역은 충청에너지서비스(주)가 관할하는 충북 지역의 도시 가스 시설이다. 충북 지역 내 자율 비행 설정 경로에 따라 돌면서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굴착 공사나 건설 장비 등의 접근을 찾아낸다.

'에이든 드론관제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위험 현장의 빠르고 정확한 파악과 위치 정보 제공이다. 에이든 드론 관제 플랫폼은 드론으로부터 가스 배관 주변 상황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 분석한다. 지리정보 시스템(GIS)과 연계해 현장의 실시간 영상에 시설물 정

보를 AR로 함께 보여주고, 위험 지역의 위치 정보(도로명 주소)를 제공해 빠른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객체인식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굴착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지리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땅 밑에 묻혀있는 가스배관 위치를 증강현실로 보여줌으로써, 미신고 굴착 공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한다.

주변 CCTV 정보나 모바일 영상도 에이든 드론관제 플랫폼이 실시간 분석해 위험 상황 미감지 우려를 없앤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별도의 시스템 투자 부담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에이든 드론관제 플랫폼은 고객이 보유한 드론과 연계한 하면 언제든 적용 가능하다. /구서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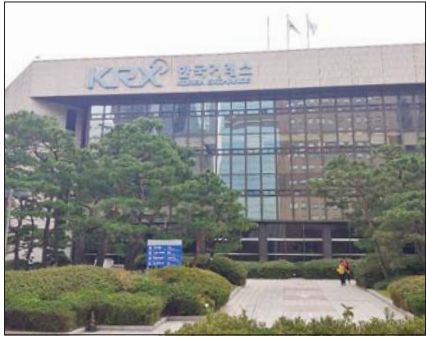
# 대체거래소 재추진에 갈라진 여론... 환영 vs 반대

〈금융투자업계〉

〈KRX·부산지역〉

**금융투자업계**  
“투자자 선택지 줘야... 활성화될 것”

**KRX·부산지역**  
“불필요한 경쟁... 투자공백 우려”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송태화 수습기자

한국거래소(KRX)의 독점체제를 깨는 대체거래소(ATS)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대체거래소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면 한국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 주식시장 구조를 깨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과 지방세수의 감소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팽하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대표되는 증권사는 힘을 모아 자체 자본금을 조성해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

성해 오는 12월에 금융위에 예비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한 차례 설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되자 다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대형 증권사가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ATS 설립 추진에 서두르자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가증권,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등을 관리하는 한국거래소가 부산에 본

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거래소는 서울에 개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식시장에서 한국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면 부산금융중심지 위상 저하와 더불어 부산 지역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체거래소 설립 허가를 보류해야 한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질타했다. 주식거래 수수료가 적게는 69억원, 많게는 39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제출하며 “필연적으로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부산 남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 역시 대체거래소에 대해 반대 견해를 내비쳤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좁은 주식 시장에서 거래 수요

를 두고 불필요한 소모적 경쟁을 할 우려가 있다”며 “매매체결이 완전히 전산화돼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를 대체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 투자지수가 다양화 되는 등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줘야 한다.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찾아 나서는 투자자 덕에 불거진 경쟁이 금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도 대체거래소의 출범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연구원은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완전한 경쟁 체제

로 가는 것”이라며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 경쟁 촉진에 의한 긍정적 효과들이 더 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나친 경쟁 체제로 거래 비용이 증가하거나 거래 안정성의 문제 등 부작용도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거래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에선 우리 금융 시스템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대체거래소로 인해 나타나는 시장 경쟁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대체거래소가 출범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거래소 인가신청을 위해 구성된 TF에 참가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확한 출범 시기를 특정하긴 힘들다. 금융위 허가도 받아야 하고 사전에 시장 조사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귀띔했다.

/송태화 수습기자 alvin@metroseoul.co.kr

## 지하철역·마트 등 인접 핵심상권 오피스텔 분양 ‘러시’

**자이S&D ‘건대입구역자이엘라’**  
총 315실... 백화점·마트 등 즐비

**화성산업 대구 ‘죽전역 화성파크드림’**  
오피스텔·아파트 복합 총 144가구



한화건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조감도.

유동인구가 풍부한 핵심상권 인근에 오피스텔이 속속 분양에 나서고 있다. 핵심상권과 인접한 오피스텔은 마트나 영화관, 병원, 맛집 등이 몰려 있다. 또한 풍부한 유동인구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아 공실 위험이 적은 편이다.

실제로 대우건설이 지난 2월에 분양한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은 롯데백화점 건넌편 홈플러스 부지에 들어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시네마, 이마트, 부천 로데오거리 등 핵심상권과 인접해 있는 입지를 갖춰 많은 관심을 끌었다. 따라서 최고 경쟁률 1451.75대 1을 기록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핵심상권 인접 10월 분양 신규 오피스텔〉

단지명	위치	총실	전용면적(㎡)	건설사
건대입구역자이엘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번지	315	18~84	자이 S&D
죽전역 화성파크드림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582-5번지	68	84	화성산업
힐스테이트 에코 안산중앙역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7-7, 8번지	702	20~57	현대건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전주시 덕진구 송촌동 2가 1313번지	203	84	한화건설

는 “오피스텔은 핵심 지역에서 공실 없이 매달 월세를 받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며 “오피스텔 투자의 핵심은 유동인구가 많은 입지,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20~30대 젊은층이 몰리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오피스텔로 GS건설 자회사인 자이S&D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 일대에 들어서는 ‘건대입구역자이엘라’ 18~84㎡, 315실(오피스텔 일반분양 269실, 준공공임대 46실)을 분양 중이다. 건대입구역자이엘라가 들어서는 광진구 자양동 일대는 서울 동부권 최대 상업지역인 건대입구 상권이 형

성돼 있다. 롯데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CGV, 로데오거리, 건대병원, 건대 커먼그라운드 등이 장점이다.

화성산업은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에 들어서는 ‘죽전역 화성파크드림’을 분양 중이다. 대구지하철 2호선 죽전역과 용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도 가깝다. 복합단지로 전용 84㎡ 오피스텔 68가구와 전용면적 63~84㎡ 아파트 144가구다.

현대건설은 이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에코 안산중앙역’ 20~57㎡, 702실을 분양한

다. 안산시 중심 상권인 중앙역 인근에 위치해 단지 바로 옆에 롯데백화점과 도보권에 뉴코아아울렛이 위치해 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안산중앙역 로데오 상권도 가깝다.

한화건설도 전북 전주에코시티 주상복합용지 1,2블록에서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84~172㎡ 아파트 614가구와 84㎡ 주거용 오피스텔 203실을 분양한다. 단지 바로 맞은편에 중심상업지구(예정)가 위치해 있고, 농수산물시장, 롯데마트, 메가월드, 전북대학교병원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 금감원 “불법사금융 이렇게 대응 하세요”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각종 제보·상담사례 등을 정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는 지난 2001년 4월 출범 이후 19년간 검찰·경찰,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윈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

금감원은 그동안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각종 제보,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주요 유형별로 분류하고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대응요령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에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개요 및 상담절차 : 2001년 4월 신고센터 설립 이후 연혁 및 업무절차, 상담시스템 등 개요 ▲불법사금융 주요유형별 개념 :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유형별 개념 정리 등이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 발간을 통해 날로 지능화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과정 운영

금융투자협회, 매월 교육과정 개설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교육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의무과정을 지난 7월부터 매월 1회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달까지 총 284명이 수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7일 서울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 6월까지 부산에서 2차례 교육을 포함해 매월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해당 교육과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 등 기본지식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투자자보호관련 실무지식

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과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경우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해당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및 부산 BIFC에서 진행된다. 교육의무대상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기존 유사투자자문업 법인의 대표자이다. 그외 임직원의 교육수강도 가능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증권 다이제스트

**삼성증권**  
17일 리츠 투자전략 세미나

삼성증권은 오는 17일 전국 전 지점에서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투자전략 동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공모리츠를 중심으로 한 대체투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투자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이 세미나의 주제로 리츠를 선정한 것은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며 최근 리츠가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리츠는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 상품을 뜻한다. /송태화 수습기자



**하이투자증권**  
300억 규모 ELS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18일 오후 1시까지 총 300억원 규모의 추가연계증권(ELS) 1종을 공모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HIELS 1961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톡스(EUROSTOXX)50 지수, 니케이(NIKKEI)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총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90%(12개월), 85%(18개월), 85%(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5.9%(연 5.3%)의 수익을 지급한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다. /송태화 수습기자



##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연기

재무건전성 준비금 신설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 연기에 맞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의 적립 기준 강화 역시 1년간 미뤄짐에 따라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준비금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LAT에 따른 보험사의 과도한 당기손실 확대를 막고, IFRS17에 대비해 자본확충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LAT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을 강화 하려면 계획을 1년씩 늦추기로 했다.

최근 급격한 금리 하락으로 LAT에 따른 책임준비금이 급증해 보험사의 당기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LAT란 결산 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이 값이 현행 부채보다 크면 책임준비금(보험 부채)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LAT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이 늘어 당기 비용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도 늘게 된다.

손 부위원장은 "LAT 적립 기준 강화 연기로 금리 하락에 따른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금리의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경우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AT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빠지고 내부에 유보된다는 점에서 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 확충에 기여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 국제 무역사기, 4년간 피해액만 255억

정확한 피해 산출하려면 소송 끝나야

국제 무역 사기가 최근 4년간 35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만 255억원으로 추정된다.

10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무역 사기는 총 139건, 피해액은 87억원이다.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건, 피해액 80억원에 달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82건의 무역 사기가 있었고, 피해액은 89억원이다.

지역별로 ▲유럽 85건 ▲동남아시아 71건 ▲아프리카 48건 ▲중국 52건 순

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3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이메일 해킹 99건(28%) ▲서류 위조 55건(15%) ▲금품 갈취 43건(12%) ▲결제 사기 41건(11%) ▲선적불량 40건(11%) ▲불법 채류 17건(5%) 등으로 이어졌다.

무역 사기 피해 금액 규모는 소송이 끝난 후 확인 가능하다. 당국이 파악하는 피해 금액은 기업이 제시하는 주관적 피해 금액으로, 객관적 금액 파악은 한계가 있다. 결국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출하려면 소송이 끝나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의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60% 늘려

일부 대기업·재산가 표적조사 지적

국세청이 지난해 거액 재산 취득자의 자금 출처 조사를 전년 대비 60%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일상화한 변칙 증여 검증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재산가 표적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박병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는 총 2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시행하는 조

사다. 세금 추징이 목적이다. 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 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자금 출처 조사는 2014년 1985건에서 2015년 1839건, 2016년 1601건, 2017년 1433건으로 감세소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갑자기 2000건대로 급격히 뿔 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국세청은 우편 등으로 보유자가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면 확인을 한 뒤 본 세무조사 성격의 실지 조사를 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하지만 서면 확인이 유사 세무 조사라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해 3월 폐지했다. /석대성 기자

# 카타르, LNG선 100척 연내 발주 연합체구성 등 조선업계 수주총력

카타르페트롤리엄 80억 달러 규모 SK해운 등 5곳 연합체 13일 설명회 조선 3사 수주 목표 달성 '한 발짝'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타르에서 날아온 대규모 발주 소식에 국내 해운선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운송계약을 따내기 위해 공동 협력에 나서고 있다.

1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리엄(QP)은 연내 LNG운반선 40척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발주 규모만 80억 달러에 달하며, 옵션물량과 노후선박 교체물량까지 포함하면 100척에 달하는 발주가 쏟아질 것으로 업계에선 전망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선박건조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소가 유력하다. LNG운반선을 이용해 카타르 LNG 수송을 맡을 선사가 이번 프로젝트의 관건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벌크선사인 대한해운, 팬오션, SK해운, 현대LNG해운, 에이치라인해운 등 5곳은 연합체를 구성해 오는 13일 카타르 도하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LNG 운송계약 수주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등도 참석



현대중공업 LNG 운반선.

한다.

카타르에서 발주한 선박을 국내 조선업계가 건조하게 되면 올해 수주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내 조선 3사는 부진한 수주 실적으로 목표치 달성에 우려를 표시해 왔다.

현대중공업은 수주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31억9900만달러의 일감을 수주하고에 올리며 올해 목표인 117억3700만달러의 27.3%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최근 싱가포르선사인 이스턴퍼시픽으로부터 1만 5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11척의 건조 일감을 확보했다. 또한 그리스 캐피탈마리타임과 LNG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 원유운반선 14척 건조를 추진

하며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다가섰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는 83억7000만달러 중 약 35.4%인 2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목표치에 가장 근접한 삼성중공업은 최근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으로부터 세계 최대 크기의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 수주 금액은 9억2000만 달러다. 삼성중공업은 또 말레이시아 선사인 MIS C로부터 17만4000㎡급 LNG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1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들 선박은 미국 오일 메이저 엑슨모빌이 생산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운송할 예정이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총 54억 달러를 수주하며 목표 78억 달러의 69%를 달성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공유경제 만난 문학콘텐츠'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공유경제 국제포럼에서 방문객들이 2019 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 선정기업 브이에스커뮤니티의 '복셀빙'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무역보험공, 기업 지원 실적 5년간 2.5兆 ↓

중견 93%·중소 63% 지원 감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채권 유동화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2조 5725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3.4%나 줄어든 것이다.

10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역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출신용보증(선적후·네고) 지원 실적은 중견기업은 2014년 1조1967억원에서 지난해 820억원까지 줄었다. 93.1%나 감소한 수치다. 중소기업도 같은 기간 2조3053억원에서 8475억원까지 줄었다. 63.2%나 떨어졌다.

수출신용보증은 담보력이 취약해 은행 금융 이용이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서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발생한 수출채권을 수출대금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금융기관이 선적서류 등 환여움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현재 수출신용보증(선적후)·수출신용보증(네고·Nego)·단기수출보험 세 가지 상품을 운영 중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경우가 이 기간 4220건에서 103건으로 감소했다. -97.6%다. 중소기업은 2만320건에서 9234건으로 -54.6%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무역보증공사의 수출채권유동화 보증상품 지원 실적이 감소한 요인은 모뉴엘 소송 분쟁에 기인한 금융기관의 무보증서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이 의원실은 분석했다.

심사기준 강화도 실적 악화 요인이다. 지난해 7월 모뉴엘 사기 사건 이후 무보는 보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리스크(위험도) 관리를 강화했다. 은행과 무보가 모뉴엘 사건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소극적 자세로 보증상품을 활용해 실적이 줄고, 건실한 수출 중견·중소기업도 피해를 봤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석대성 기자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하면

# 샘플 무료 증정!

“빠르고 쉽게 뭉치는”  
지친 내 몸을 위한 **마사지 크림**

배구여제 김연경의 추천! ☆

Warming up & Recovery cream



#온열효과 #특허원료 #슬리밍 #마사지크림



샘플 신청 방법

- TALK 카카오톡을 실행합니다.
- Q 친구리스트에서 맨 위 확대경 모양을 누릅니다.
- + “액티브라이프”를 입력하여 친구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 ➔ 안내에 따라 무료 샘플을 신청합니다.



NAVER

## 인공지능 新격전지는 ‘AI 상담원’ kakao

네이버 ‘AI콜센터’ 연내 서비스 예약·안내 등 막힘없이 응대 카카오투 ‘디플로’ AI 프로젝트 소상공인 플랫폼에 적용키로

“내일 저녁식사 예약 4명 가능할까요?” “네. 내일 저녁 오후 7시에 저녁 식사 예약 가능합니다.” “일요일 저녁 7시에 4분 저녁식사 예약해드립니다.”

기계음이 아닌 사람 목소리의 인공지능(AI)이 레스토랑의 고객센터에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상담원 못지않게 능숙하게 시간 안내 및 레스토랑 예약까지 완료해준다. 매장 운영시간을 묻는 질문이나 주차장, 주차비 등에 대한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해준다. 또 AI 아바타를 설정하고 두 명이 트와이스 춤을 보고 댄스 배틀을 벌이면 AI가 이를 평가해주기도 한다. 이 같이 고도화된 AI 서비스가 올해 연말부터 차례로 등장할 전망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양대 포털들은 고객의 말을 맥락까지 이해해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AI 상담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빠르면 연말 안에 이를 적용한 AI 콜센터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목소리나 동작 추출 기능, 목소리 합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동아 제테크·핀테크쇼’에서 한 참석자가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해 금융상품을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안면인식 기술 등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네이버는 자연어처리,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 기술 등을 결합해 상담원을 대체할 수 있는 AI 콜센터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연말 정도에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추가로 종업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고 전화 응대의 부담을 덜고 본인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AI 동작 인식 및 추적 기술, 얼굴 인식 기술, 여러 명이

대화할 경우 한명의 말만 추출해 들을 수 있는 ‘각테일파티’ 효과, 연예인의 목소리를 합성해 AI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기술 등을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돌의 댄스 영상을 보면서 친구 2명이 댄스 대결을 하기 원하면 자신의 아바타를 만든 후 2명의 춤추는 모습을 카메라 등을 통해 중계하면 AI가 평가에 참여해 화면상에서 댄스 배틀이 가능해진다. 네이버는 이 같은 서비스를 조만간 선보일 계획으로 막바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는 또한 토론회 등에서 여러 명이 발표해 자신이 원하는 토론자의 말을 알아듣기 어려울 경우, 1명의 말을 추출해낼 수 있는 목소리 추출 기능도 개발했으며 이를 활용한 동영상 검색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연예인 유인나 등의 목소리를 합성해 AI 스피커가 안내해주는 서비스, 미리 안면을 등록하면 AI가 얼굴을 인식해 행사 입장 등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AI 신규 서비스를 차례로 내놓을 예정이다.

카카오는 현재 사람처럼 대화가 가능한 AI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AI가 전화로 식당을 예약하는 등 콜센터 업무, 드라이브스루로 커피 주문, 회의 일정 픽스 등 다양한 업무를 대체해 서비스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인 ‘카카오 아이 디벨로퍼스’를 선보였는데, 이 플랫폼에서 이전에 선보인 카카오 챗봇뿐 아니라 향후 AI 콜센터 기능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우리가 개발 중인 AI 시스템은 지금까지 사람이 해왔던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AI가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매끈하게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단순히 이용자

의 발화를 인식하거나 이해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대화의 컨텍스트(맥락)까지 파악해 필요로 하는 다음 액션까지 제시하거나 대항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새로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Dual, Deep Learning, Dialogue’를 상징하는 ‘D’와 흘러감을 뜻하는 ‘Flow’의 합성어인 ‘디플로’라 명명했다. 회사측은 “이 프로젝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나 일을 거부감 없이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보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의 봇 플랫폼, 카카오톡 미니, 헤이카카오 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에 앞서 이미 소상공인들이 ‘챗봇(대화 로봇)’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질문하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빠르게 답을 해주는 기능, 발화의도를 파악하는 ‘미니미’ 기능, 질문에 가장 유사한 의미의 정답을 찾는 ‘심슨’ 등 기술을 일부 적용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中 NCC 내년부터 물량 증가 국내 화학업계 전면전 불가피

전세계 과잉 공급... 경쟁 심화 국내 업계 NCC 증설 등 집중

내년 중국의 NCC(나프타분해설비) 증설로 인해 전세계 화학업계에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화학업계의 경쟁이 심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국내 화학업계는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전세계 시장이 침체돼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그간 적극적인 투자로 NCC 설비 증설에 힘 써왔던 중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물량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 화학업체 대부분이 NCC설비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화학업체들은 당장 내년부터 쏟아질 중국의 ‘물량 공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세계 시장의 에틸렌 공급 증가분이 올해는 600만톤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약 1200만톤에 육박하는 신규 증설물량이 풀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에틸렌 증설 물량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중국이 약 1700만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내 화학업계가 중국의 과잉 공급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에틸렌은 PE(폴리에틸렌),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 SM(스타리엔모노머) 등 다양한 화학제품을 만들기 위한 핵심 원료다.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종류에는 ▲NCC나프타분해설비 ▲ECC 에탄분해설비 ▲CTO 석탄분해설비 ▲MTO 메탄올분해설비 등이

있다. 에틸렌을 생산하는 능력은 곧 석유화학제품의 생산능력과 직결돼 화학업체들은 신규 설비 증설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롯데케미칼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내 화학업체가 NCC설비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 경쟁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케미칼은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셰일가스에서 뽑아낸 에탄을 기반으로 하는 ECC설비에 투자했다.

반면 GS칼텍스는 지난해 에틸렌과 폴리에틸렌 도합 연간 120만톤 규모를 생산하는 나프타 분해 설비 증설에 2조 7000억원을 투자했고, LG화학 또한 2021년 가동을 목표로 2조 6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에틸렌 80만톤과 폴리올레핀 80만톤이 생산 가능한 설비 증설을 진행 중이다. 에스오일은 7조원을 투자해 150만톤의 에틸렌 생산 설비 신설에 나섰다.

내년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중국이 그동안 화학산업에 굉장한 투자를 해왔고 내년부터 그게 풀린다”며 “우리가 기술력이 좀 더 앞서고 경험이 많지만 중국이 꾸준히 따라와 대등한 위치가 됐다. 안 그래도 경제상황이 안 좋는데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화학산업에 대한 한국사회의 거부감과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문제다. 적극적 지원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중국의 추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지 수습기자 sjkim2935@

## 두산, 국내 최대 로봇박람회서 기술력 과시

‘2019 로보월드’서 ‘GX시리즈’ 첫선 ‘협동로봇’ 실제 현장적용 작업 시연

두산과 두산로보틱스는 9일부터 1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로봇 박람회인 ‘2019 로보월드’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두산 모트롤BG는 이번 전시회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로봇용 사이클로이드(Cycloid) 정밀감속기 ‘GX시리즈’를 처음 공개했다.

감속기는 기어를 활용해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부품으로, 산업용 로봇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모트롤BG의 GX시리즈는 다양한 감속비와 높은 강성, 안정적인 동력 전달이 특징인 저소음·고효율의 정밀감속기다.

두산로보틱스는 전시회 전면에 이번 참가 업체 가운데 가장 큰 부스를 마련



오는 1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로봇 박람회 ‘2019 로보월드’에 참가한 두산로보틱스의 부스 전경. /두산

하고 두산 협동로봇의 탁월한 기능과 활용성을 알렸다.

두산로보틱스는 고도의 순응제어 기술을 활용한 자동차 통풍 및 헤드레스트 검사, 2대의 공작기계 앞에서 수행하는 보조작업 등 실제 생산 현장에 적용

중인 작업을 시연했다. 또한 영상처리와 음성인식 AI를 적용한 협동로봇,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를 공인로봇으로서 내년 대회부터 실제 수행할 프로그램도 공개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 무협, 중동 화장품·의료시장 공략 시동

강남구청과 두바이서 페어 개최

무역협회가 강남구와 손잡고 중동 화장품 및 의료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무역협회는 강남구청과 공동으로 9일부터 이틀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2019 강남 프리미엄 미디어·뷰티 페어’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 화장품 기업 8개사가 UAE의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눈닷컴, 여성패션 전문 몰 브랜드 바자르, 아랍 최초의 TV홈쇼핑 씨트러스 등 55

개 현지 바이어와 1대1 전시 상담회에 참가했다. 바이어들은 피부 전문병원에서 쓰는 치료용 화장품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을 생산하는 바이오비엠, 코페랑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세림 및 클렌저 수출기업 라이언컴퍼니는 상담회장에서 두바이의 대표 뷰티용품 유통망 알파메드와 4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하룬 라이언컴퍼니 대표는 “이번 MOU를 계기로 알파메드와 중동 내 한국 화장품 브랜드 런칭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주고받을 예정”이라며 “한국 화

장품에 대한 중동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에 우수한 제품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남구 소재 피부·성형·정형외과 등 8개 의료기관은 중동의 의료 관광객 유치 위해 이틀간 소비자 대상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400여명이 방문한 행사에는 UAE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을 위탁 운영 중인 서울대 병원에 많은 참가객이 몰려 중동에서 K-뷰티뿐 아니라 우수한 한국 의료에 많은 수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9일 두바이 합투르 팰리스호텔에서 두바이수출총과 의료, 관광 등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정연우 기자



<감사원 자산취득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월	11월	12월	
2015년	금액	110	145	541	29	63	445
	집행률	9%	11%	43%	2%	5%	31%
2016년	금액	181	532	439	12	38	690
	집행률	9%	27%	23%	1%	2%	36%
2017년	금액	146	230	114	410	251	567
	집행률	7%	11%	6%	20%	12%	27%
2018년	금액	103	309	460	38	262	441
	집행률	5%	15%	22%	2%	12%	21%
2019년	금액	214	99	114(7월)	-	-	-
	집행률	7%	3%	3%	-	-	-

※ 16년 12월 36%, 17년 4분기 60%, 2019년 7월 현재 미집행률 87%

## “국가 예산감독 기관이 이래서야”

# 감사원, 예산 30% 연말 무더기 집행

3년간 12월 집행액 총 14억 중 13억  
올 예산 7월까지 집행액 13% 불과

국가기관 예산 집행을 감독하는 감사원이 예산 30%를 연말에 무더기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감사원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6년 12월 1년 예산의 36%를, 2017년 4분기에는 1년 예산의 60%를 몰아 썼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집행한 예산은 전체 중 13%에 불과했다. 올해도 연말 무더기 예산집행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이다.

감사원은 자산취득비 대부분을 전산운영 정보화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역으로는 컴퓨터 같

은 사무기기와 소프트웨어 구입에 주로 사용했다. 2015년부터 3년간 12월에 집행한 총액 14억원 중 13억원을 12월 20일 이후 몰아 썼다.

현행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 관서가 예산을 사용할 때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채 의원은 “집행률이 낮으면 내년 예산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 부랴 부랴 남은 예산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감사원이 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라며 “다른 기관을 감사하기 전에 감사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 檢, 부정선거·경제 사건만 수사

‘전문공보관’ 도입키로

검찰이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최소 한도로 절제하고, 별도의 ‘전문공보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4번째 내놓은 자체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10일 “종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대검은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사회 발전속도와 추세에 부합하도록 검찰권 행사 방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혁안은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파악된다. 조 장관은 신속 추진과제로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과건 최소화를 실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4번째 개혁안은 법무부 개혁안과 방향이 대체로 같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검찰 안팎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겠다는”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로 국민 인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계획도 나왔다. 현재 수사담당자들이 담당하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을 뒤 전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피의사실 공표와 포토라인 문제와 관련해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 조화를 이룰 방안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와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손현경 기자

# 창업비용 절감... 쇼핑몰운영자와 비슷

## 100세 시대 5060 신중년이 된다

### 직업탐색 가이드

#### ⑤ 오픈마켓 판매자

옥션·G마켓 등 중개형 사이트서 개인·소규모 판매업체 상품거래

50대 이상 판매자 매년 2배 증가 마케팅·유통 경력자 도전 바람직

#### ◆온라인으로 상품 판매

인터넷 쇼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옥션이나 G마켓과 같은 중개형 사이트에서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 하는 오픈마켓(open market)을 들 수 있다. 즉, 오픈마켓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자적 가상시장으로,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중간유통마진을 생략할 수 있어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회사는 판매자에게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가로 상품을 등록한 사용자에게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다. 때문에 우수한 판매자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오픈마켓판매자는 이러한 오픈마켓에서 판매품목을 설정해 실제

#.정년퇴직 후 창업을 계획했던 A씨는 임대료 등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오프라인 창업을 포기하고 온라인 창업을 알아보기로 했다. 오픈마켓 운영 회사를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니 생각보다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었다. 창업아이템은 3D프린터로 제작하는 성인용 피규어, 50세가 넘는 나이에도 자칭 ‘키덜트족’으로 불릴 길 원했던 그는 늘 젊은이들 못지않은 감각으로 피규어를 제작해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오프라인 창업이라도 창업이라는 부담이 커서 갈등도 했지만,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이었기에 다행히 단기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온라인 영업과 유통을 하는 판매자를 말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기존에 잘 알려진 직업인 ‘온라인 쇼핑몰운영자’와 하는 일은 거의 유사하다”며 “판매가 이뤄지는 장소가 오픈마켓이나, 실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 ◆50대 판매자 수 증가 추세

오프라인 창업에 비해 초기 자본금이 적다는 점에서 50대 이상 판매자의 수가 크게 늘었다. 한 오픈마켓 사이트의 경우는 50대 이상의 판매자가 매년 2배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중장년층 판매자들이 선택하는 품목은 누구나 취급하기 쉬운 의류나 잡화 등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 경쟁에서 밀려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편이다. 때문에 품목의 다양성과 경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결국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한 품목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말 그대로 오픈

마켓이기 때문에 경쟁에도 무한정 오픈되어 있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판매 수익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고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등 치열한 경쟁이 단점이 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 뿐 아니라 품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판매 및 영업, 마케팅, 유통 등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분들이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픈마켓 운영 사이트에서도 우수한 판매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매자를 교육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우리나라 대표 오픈마켓에서는 거의 판매자 교육센터를 운영한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비교적 쉽게 창업이 가능 하다. 이외에도 창업스쿨,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오픈마켓판매자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온라인 교육이나 무료 교육을 쉽게 접해볼 수 있다. /손현경 기자 son89@



#### 국민제안 듣는 조국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법무부

## “원칙없는 세금 車 개소세 폐지를”

자동차 한 대에 부과하는 세금이 11가지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차 한 대를 구입해 운영할 경우 내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자동차세·개소세 등이 있다.

일반 승용차와 캠핑용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륜자동차에 일괄 부과하는 개소세의 경우 당초 부과 목적이 사치성 재화의 소비를 막고자 하는 것이지만, 현행 차량 출고가의 3.5%가량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소세 수입은 약 1조원에 이른다. 자동차가 1000만대를 넘어서 필수재가 된지 오래지만, 단순 세원 확보를 목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석대성 기자

## 공직자 횡령 미수금 103억 회수 못하나

횡령미수금 소멸시효 내년 시행 내년 1.5억, 2021년 101.6억 만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직원 2명이 100억원 넘는 돈을 횡령해 처벌 받았지만, 횡령 미수금의 소멸시효가 내년부터 시작돼 자칫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10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속 직원 2명이 횡령한 돈은 총 108억 6000만원이다. 지난 2006년 5월 동남본부 행정지원팀 회계를 담당하던 박모씨는 2008년 3월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창원클러스터 운영자금 5억4000만원을 횡령했다. 박씨는 같은 해 9월 적발돼 파면되고 법정 구속됐다.

2008년 5월에는 본사 행정지원실 회계 담당 배모씨가 같은 해 12월까지 산

단 보상비를 차명계좌 70개를 개설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103억2000만원을 횡령했다. 이듬해 7월 적발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횡령한 108억원 가운데 회수한 돈은 5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03억원은 회수하지 못한 실정이다.

횡령 미수금 103억원의 소멸시효는 내년부터 시작한다. 박씨 횡령 사건에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1억5000만원은 채권시효가 내년 5월 4일 만료한다. 배씨가 횡령한 돈 중 돌려받지 못한 101억6000만원의 소멸시효는 이듬해인 2021년 6월 22일이다.

산단공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통해 두 사람의 재산을 조회했지만, 재산이 없다는 답변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석대성 기자



동원산업-한양대, 한양AI솔루션센터 설립

# AI 기술, 산업체 확산에 물꼬

중소·중견기업에 AI기술 공유 산업체에도 도움 되는 실용 연구

최근 글로벌 산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산업체 현장에 실제로 적용, 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한양AI솔루션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양AI솔루션센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게 AI기술을 공유하고 이들의 지속적 성장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AI솔루션센터다.

동원산업은 한양대학교와 10일 한양AI솔루션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원산업이 30억원을 기부하고, 개교 80주년을 맞은 실용학풍의 대명사 한양대가 손을 맞잡아 탄생한 것이다.

한양대 한양종합기술원(HIT)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이명우 동원산업 사장,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 김우승 한양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초대 센터장은 삼성전자에서 AI개발 그룹장을 역임했던 강상기 박사가 맡는다. 기업체 출신의 센터장을 배치함으로써 한양AI솔루션센터를 연구개발(R&D)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을 하는



10일 진행된 개소식에서 손욱 전 삼성종합기술원장(왼쪽부터),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이명우 동원산업 사장, 김우승 한양대 총장,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 최덕근 한양대 교학부총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원산업

벤처회사처럼 운영하겠다는 의지다.

강 센터장은 “한양AI솔루션센터는 제조공정 분야 위주로 실용적 AI기술을 이용한 핵심솔루션을 중소기업 등 산업체에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핵심적이고도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나라가 한발 앞서 갈 수 있는 동력(動力)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양AI솔루션센터는 산업체 현장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많은 한양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AI 기술의 국내 산업체 확산에 본격적인 물꼬를 트겠다는 목표를 갖

고 있다.

앞으로 한양AI솔루션센터는 제조공정·스마트IT·머신러닝·AI플랫폼분야 등 산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용연구로 기업 대상 기술자문, 솔루션 개발, 임직원 대상 AI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양대는 AIS피커를 국내대학 최초로 상용화한 장준혁 교수를 부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연구력이 뛰어난 20여명의 교수를 센터에 참여시켜 솔루션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국내 대학 최초로 다양한 AI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강의를 하는 ‘AI 기부 강좌’ 개설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인웅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대학별 전략 세워 수능 대비”

남은 30여일, 선택과 집중 필요 수능 일정 따른 컨디션 조절 중요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짧은 기간 급격한 성적 상승을 노리기 보다는 목표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에 따른 전략적인 학습과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우선 그동안 풀었던 수능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게 좋다.

국어와 영어의 경우 정답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해설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문제 풀이를 해보자. 수학은 풀이과정이 논리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험은 제한된 시간이 있으므로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이할 때는 문제의 난이도를 파악하고 대략적인 문제 풀이 시간을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새로운 문제를 공부할 때는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로 풀이해 보는 것이 좋다. 이 때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오답 정리를 꼼꼼히 하고 이를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투자해 복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신의 목표로 정한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경우도 대

학별 실질 반영률 차이가 크므로 영어 성적의 상대적인 위치를 감안해 지원 대학을 정하는데 참고해야 한다.

예컨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경우 인문계 탐구영역 반영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양대는 30%로 높은 편이지만, 서강대는 18.7%, 성균관대는 20%로 상대적으로 반영비율이 낮다. 반대로 인문계 수학의 경우는 서강대가 46.9%로 높지만, 성균관대는 40%, 한양대는 30%이다.

따라서 이들 대학 중 서강대를 지원하려면 탐구 영역보다는 수학 영역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게 효율적이고, 한양대를 지원한다면 수학만큼 탐구영역에도 시간을 투자하는 전략이 세워야 한다.

영어의 경우는 한양대 자연계열은 반영비율이 35%, 이화여대와 서울시립대 인문 I은 25%의 비율로 반영하지만, 서강대와 성균관대, 중앙대는 가점을, 서울대, 고려대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등 대학별 실질 반영비율이 다르다.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능 당일 일정에 따른 컨디션 조절도 중요한 시기다. 수능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오랜 시간 집중해 치러지므로, 이 시간대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한용수 기자 hys@

대학가 소식

## 방송통신대 입학생 16.2% 학업 중도 포기



단국대 죽전캠퍼스 상징탑 /단국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는 지난 10년간(2010~2019) 총 56만 9183명이 입학했으나, 이 중 입학취소(포기), 자퇴자 등 등록금을 반환받은 학업 중도 포기자는 9만2351명으로 전체의 약 1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방송대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대학등록금 반환 현황’에 따르면 방송대 자퇴자는 7만9752명이 약 202억원, 입학취소(포기)자는 1만2599명이 약 44억5천만원의 등록금을 반환받았다.

이 밖에 과오납 1741명 약 4억6000만원을 포함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에 따라 반환된 등록금이 총 2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대 입학생은 지난 2010년 7만 2183명에서 2019년에는 4만3291명으로 약 40%의 입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입학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만여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10년 간 총 24만623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송대는 모든 국민들에게 원격 교육방법에 의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어 평생 교육 체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방송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인재로 착실하게 성장하도록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 단국대 경기 남동 기업에 무료교육

단국대는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추진 본부가 경기 남동부(광주, 성남, 용인) 소재 기업의 마케팅과 투자유치, 재무교육 등 경쟁력 제고와 성장을 돕기 위해 무료 특화교육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단국대 죽전캠퍼스 글로벌산학협력관 1층 SW디자인융합센터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디지털 마케팅 ▲투자유치 및 R&D 기획 ▲특허 ▲세무/회계/재무관리 등 4회에 걸쳐 구성. 강의별 선착순 30기업을 모집하며 단국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 한성대 ‘46년 한글연구’ 독학자 특강

한성대학교는 14일 오후 4시 교내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알브레히트 후베 독일 본대학교 명예교수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후베 교수는 46년간 한글을 연구해 온 한글 전문가로,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 한국 문학을 가르쳤고, 서울대와 한양대, 성균관대 등에서 강의하기도 했다. /한용수 기자

# 블라인드 채용한다지만... “면접자 외모, 구직에 영향”

사람인, 기업 926개사 설문조사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력서에서 사진을 요구하지 않는 등 채용 시 구직자의 외모를 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채용 평가에서 외모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사람이인 기업 926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평가 시 외모의 영향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8.4%가 지원자의 외모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식음료/외식’(79.2%), ‘금융/보험’(76.2%), ‘유통/무역’(70.6%), ‘서비스’(68.4%) 등, 고객과 직접 대면할 일이 많은 업종에서 외모가 평가에 영향을 주는 비율이 높았다.

실제로 지원자의 외모가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도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유리할 것 같아서’(36.2%)라는 응답이 1위였다. 근소한 차이로 ‘꼼꼼하고 자기관리를 잘 할 것 같아서’(34.8%)가 뒤를 이었으며, ‘외모도 경쟁력이라서’(24.2%) ‘대인관계가 원만할 것 같

아서’(23.5%), ‘업/직종 특성 상 외모가 중요해서’(19.6%) 등의 순이었다.

외모 중 채용에 영향을 주로 미치는 부분(복수응답)은 ‘인상, 표정 등 분위기’가 8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 ‘청결함’(40.5%), ‘옷차림’(32.3%), ‘체형’(18.9%), ‘이목구비’(11.6%)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외모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33.9%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30%’(28.5%), ‘20%’(21.8%), ‘50%’(18.1%), ‘10% 미만’(13.9%) 등이었다. /한용수 기자

## 기업 인사팀 10명 중 6명, 경력직 평판조회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6명은 경력직 채용시 평판조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298명을 대상으로 ‘평판조회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60.1%는 ‘앞으로 경력직 평판조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33.2%,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6.7%였다.

평판조회가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전 정보수집 차원에서 참고만 한다’(62.8%)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최종 선택에만 영향을 미친다’(21.5%),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14.4%), ‘평가

점수에 반영된다’(1.3%) 순이었다.

평판조회 시 가장 힘든 점으로는 ‘평판조회로 얻은 정보를 어느 선까지 신뢰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56.4%)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평판조회 의뢰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28.9%), ‘많은 비용이나 시간을 투자하는 것’(7.4%), ‘평판을 통해 얻은 정보를 보안유지하는 것’(4.4%), ‘평판조회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3%) 등이었다.

평판조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72.5%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27.5%)보다 많았다. 평판조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생각하는 근거(복수응답)로는 ‘서류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The-K호텔에서 열린 연구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시스

나 면접으로 가늠할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있어서’(40.5%)가 가장 많이 꼽혔고, 평판조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로는 ‘평판조회를 통해 얻은 정보가 상세하지 못해서(수박겉핥기식이라서)’(58.5%)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용수 기자





☑ 근육통 ☑ 관절통 ☑ 어깨통증



Since 1933 대한민국 진통소염제

안티푸라민®







**LS산전, 청주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1억 기부**

LS산전이 청주 1·2차 업장이 위치한 청주 지역 소외계층 자립을 위한 복지 사업 후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LS산전은 10일 청주시청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오른쪽), 이승규 LS산전 사업장지원부문장(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이웃돕기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LS산전이 청주 1·2차 업장이 위치한 청주 지역 소외계층 자립을 위한 복지 사업 후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LS산전은 10일 청주시청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오른쪽), 이승규 LS산전 사업장지원부문장(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이웃돕기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LS산전



**롯데하이마트 전국 아동복지시설 놀이 멘토링 봉사**

롯데하이마트가 10월 한 달간 서울, 전남, 대구 등 7개 지역 아동복지시설에서 릴레이로 놀이 멘토링 봉사활동을 펼친다. 첫 봉사활동은 1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강동꿈마을'에서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롯데하이마트 박수용 모바일부문장(왼쪽에서 세 번째), 강동꿈마을 최은미 시설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롯데하이마트 샷데봉사단' 20여 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가 10월 한 달간 서울, 전남, 대구 등 7개 지역 아동복지시설에서 릴레이로 놀이 멘토링 봉사활동을 펼친다. 첫 봉사활동은 1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강동꿈마을'에서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롯데하이마트 박수용 모바일부문장(왼쪽에서 세 번째), 강동꿈마을 최은미 시설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롯데하이마트 샷데봉사단' 20여 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시리얼 구매하면 동량 제품 자동기부**

**농심켈로그**

카카오 스토어 켈로그 공식몰서 '세계 식량의 날 맞아' 기부 캠페인

농심켈로그가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카카오톡에서 10만명의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한끼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심켈로그가 모바일 쇼핑 몰에서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카카오 스토어'의 켈로그 공식몰에서 세계 식량



의 날 기념 켈로그 프로모션 제품을 구매하면 동량의 시리얼 제품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자동으로 기부된다. /박인웅 기자 parku7854@



**이랜드, 서울시와 노숙인 의류지원 후원협약**

이랜드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서울시와 손잡고 의류지원사업 후원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숙인 의류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해온 사업으로, 시민, 기업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류를 모집해 분류 과정을 거쳐 노숙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랜드월드 최운식 대표(왼쪽부터 차례대로)와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 실장, 정재철 이랜드재단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랜드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서울시와 손잡고 의류지원사업 후원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숙인 의류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해온 사업으로, 시민, 기업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류를 모집해 분류 과정을 거쳐 노숙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랜드월드 최운식 대표(왼쪽부터 차례대로)와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 실장, 정재철 이랜드재단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랜드월드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 몽골 복지부 의료 훈장 영예**

지난 9일 몽골 울란바토르 보건부 청사에서 보건부로부터 의료 훈장을 받았다. 힘찬병원은 몽골 경제발전 및 의료환경 발전을 위한 몽골 현지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거주하는 몽골인들을 위한 의료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왼쪽)이 간디 특수자르갈 보건부장관(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이 지난 9일 몽골 울란바토르 보건부 청사에서 보건부로부터 의료 훈장을 받았다. 힘찬병원은 몽골 경제발전 및 의료환경 발전을 위한 몽골 현지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거주하는 몽골인들을 위한 의료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왼쪽)이 간디 특수자르갈 보건부장관(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힘찬병원

**잇몸뼈와 임플란트**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최근 임플란트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중장년층은 물론 노년층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액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틀니와 달리 심미적 효과가 뛰어나고 자연치아와 거의 흡사한 저작능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잇몸 뼈가 약하거나 남아있는 잇몸 뼈가 많이 부족하면 임플란트 시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뼈가 부족해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더라도 정밀진단을 해보면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뼈가 남아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실제로 뼈의 방향과 이식될 임플란트의 모습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임플란트 시술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컴퓨터 단층촬영을 통한 정밀진단과 혈액검사, 환자의 건강상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충분한 잇몸 뼈 확보, 수술 집도자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성 등

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잇몸뼈가 부족해 임플란트를 식립할 공간이 부족하다면 잇몸뼈이식술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잇몸뼈를 이식할 때에는 인공뼈를 사용하거나 조직친화도를 고려해 자신의 뼈를 직접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식할 양이 많지 않으면 구강 내 어금니 뒤쪽이나 아래턱 뼈를, 양이 많다면 골반이나 두개골, 다리뼈 등에서 떼어낸 뼈의 일부를 사용하게 된다.

만일 긴 치료기간이 부담스러운 고령자나 무치악·당뇨·고혈압 환자라면 '노벨가이드 임플란트'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 노벨가이드 임플란트란 마우스피스 모양에 구멍을 뚫어 인공치아를 심을 정확한 위치와 각도를 유도하는 장치다. 이 시술법은 기존 임플란트보다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CT와 수술설계용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수술에 앞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검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3D, CT, 파노라마 촬영을 통해 환자정보를 수집하고, 측정된 자료를 통해 환자의 치조골 상태, 골 밀도 등을 확인하여 수술방법을 진단해야 한다. 그다음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3차원 모의 임플란트수술을 시행하고, 치조골의 상태와 튼튼한 잇몸뼈를 찾아 임플란트가 삽입될 위치와 경사도, 깊이 등을 파악하여 실제 임플란트 삽입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게 된다.

모의 임플란트 수술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함으로써 전문의에게 좀더 안정적인 데이터와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처럼 노벨가이드 임플란트는 환자의 정확한 정보를 통해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인공치아가 심어질 부위만 노출하여 불필요한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환자의 잇몸 뼈 상태가 충분하고 양호하다면 임플란트 수술 직후 바로 만들어진 인공치아(영구보철물)를 결합시킬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시술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수술시간은 약 1시간 정도로 짧고 수술 당일 음식 섭취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해 노년층도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으며, 비용이 부담된다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민음신치과 원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中 장춘시 명예시민 선정**

**국내은행 유일 동북 3성에 점포 금융발전·교류강화등 공로 인정**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중국 길림(지린)성의 성도인 장춘(창춘)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 장춘시가 지난 1986년부터 장춘시의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기 시작한 이후 한국인 가운데 세 번째 선정이다. 올해로 33주년을 맞고 있는 장춘시 명예시민 선정에는 그 동안 헤르베르트 디스(Herbert Diess)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 등 총 16개국 70명의 명예시민이 선정됐다.

함 부회장은 "장춘시의 명예시민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장춘시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 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왼쪽)이 중국 길림(지린)성의 성도인 장춘(창춘)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후 지난 9일 중국 길림성 장춘시정부 회의실에서 리우신(LIU XIN) 장춘시 시장으로부터 기념패를 수여받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리우신 장춘시 시장은 "장춘시의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함 명예시민에게 축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선진 금융서비스를 장춘시에 전파해 장춘시의 발전과 한중 교류 강화에 힘을 보태 달라"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중국의 동북 3성에 모두 점포를 둔 유일한 국내 은행인 KEB하나은행을 통해 동북 3성과의 오랜

협력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지난 2008년 길림성 최초의 외자은행인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장춘분행을 개설한 이래, 2010년에는 길림성 최대 은행인 길림은행에 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해 동북 3성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를 확보하는 등 든든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홍인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인사**

- ◆ 국가인권위원회 △ 홍보협력과장 윤설아
- ◆ 서울경제TV(SEN) ◇ 승진 △ 채널마케팅 국 국장 조성천 △ 제작본부 부국장 신현우
- ◆ 시민금융진흥원 △ 금융본부장 임재형
- ◆ 아이뉴스24 △ 이사회 의장 겸 조이뉴스24 대표이사 이창호 △ 아이뉴스24 대표이사 이훈 △ 조이뉴스24 부사장 겸 편집국장 박동석 △ 조이뉴스24 광고신사업국장 우성제 △ 조이뉴스24 부국장(에디터) 박재덕 △ 조이뉴스24 이슈팀장(부장) 김형태 △ 조이뉴스24 연예팀장(부장) 정명화 △ 조이뉴스24 스포츠팀장

(차장) 류한준

**부음**

- ▲ 강경희(전 서울금융예회 회장)씨 별세, 백운화(전 두산기술원 원장)씨 부인상, 백진이·백정우(미래전략연구원 이사)씨 모친상, 김형진씨 장모상, 최윤정씨 시모상 = 10일 오전 6시2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2일 오전 9시, 장지 경기도 광주 시안가족추모공원. 02-2227-7600
- ▲ 노순봉씨 별세, 고진용(전 의정부시 과장)·진성(전 한국자금증개추 이사)·진택(의정부시

- 균형개발추진단장)·금속·현숙·은자씨 모친상, 장금순·이성혜(전 재능중학교 교사)·김옥연씨 시모상, 전상규·박충일·이부근(의정부시 노인지원팀장)씨 장모상 = 10일 오전 2시 40분, 의정부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031-871-4444
- ▲ 김성규씨 별세, 광승영(충청일보 과산·중평주재 부국장)씨 장인상 = 10일 오전 1시 18분, 청주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043-254-1244
- ▲ 김막동 씨 별세, 김인호(서울시의원) 씨 부친상 = 10일, 서울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추모관 201호, 발인 12일 오전 7시. 02-2180-8109



# “지구를 지켜라”... 유통가, 친환경 배송戰 막 올랐다

**신세계 SSG닷컴**  
친환경 냉장 전기차 배송서비스  
‘알비백’ 도입... 일회용포장 줄여

**풀무원 녹즙**  
전기차 ‘D2’ 도입... 배달환경 개선

**BGF리테일 헬로네이처**  
재사용 가능 ‘더그린박스’ 선봬



최우정 SSG닷컴 대표이사, 안철민 SSG닷컴 SCM총괄담당, 전금배 현대글로비스 물류사업본부장,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왼쪽부터)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글로비스 본사에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SG닷컴

유통업계 화두가 ‘새벽배송’에서 ‘친환경 배송’으로 넘어가고 있다. 소비자들의 친환경에 대한 의식이 고취됨에 따라 업계는 친환경 배송에 투자를 늘리는 추세다. 플라스틱·비닐봉투 줄이기부터 최근에는 매년 격정없는 전기차를 활용한 배송서비스까지 도입하고 나선 것이다.

**◆매연 걱정 없는 전기차 배송**

신세계그룹의 공식 온라인몰 SSG닷컴은 종합물류기업 현대글로비스와 손을 잡고 ‘친환경 냉장 전기차 배송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이마트몰 배송차량은 점진적으로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할 예정이다. 배송차량 일부를 친환경 전기차로 시범 전환한다. 현대글로비스는 냉장 전기차량 공급과 배송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냉장 및 냉동 기능을 탑재한 전기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양사는 차량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내 전기 배송차량의 안정성, 주행능력 등 테스트 기간을 거쳐 올 연말 김포에 완공 예정인 온라인 물류센터 ‘네오 003’부터 전기 배송차를 점진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SSG닷컴은 전기 배송차량 도입을 통해 친환경 배송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타사와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풀무원 녹즙도 친환경 배송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이다.

풀무원 녹즙은 모닝스텝(녹즙 배달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세미스코 초소형 전기차 D2를 도입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녹즙 배달 차량에는 다른 전기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알려진 친환경 리튬폴리머 배터리(17.28kWh)가 탑재된다. 1회 충전 시 최대 150km까지 주행이 가능해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녹즙 제품의 특성에 맞게 제작됐다. 풀무원 녹즙은 시범 운영을 통해 점차적으로 녹즙 배송에 D2 활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과대포장X! 친환경 포장재 도입**

포장재도 친환경으로 바뀌는 추세다.

SSG닷컴은 최대 9시간 보냉력이 유지되는 ‘알비백’을 첫 주문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40l의 넉넉한 용량과 깔끔한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SSG닷컴에 따르면 새벽배송 시작 이후 두 달 동안 알비백을 도입해 일회용 포



알비백(위), 마켓컬리 종이포장재. /SSG닷컴·마켓컬리

장용품 약 80만개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재사용률도 95%를 웃돌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푸드마켓 브랜드 ‘헬로네이처’도 재사용 가능한 배송박스 ‘더그린박스’를 선보였다. 실폐대 소재와 자투리천들을 활용해 만든 배송박스로 보냉 효율도 기존 스티로폼박스 대비 1.5배 뛰어나다.

마켓컬리는 지난달 25일 주문건부터 100% 재활용 가능한 종이로 모든 포장재를 전환했다. 김슬야 마켓컬리 대표는 모든 포장재를 종이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회수한 종이 포장재

를 재활용해 그 수익금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켓컬리는 새벽배송의 냉동 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스티로폼 박스를 친환경 종이 박스로 변경했으며 비닐 완충 포장재는 종이 완충 포장재로, 비닐 파우치와 지퍼백은 종이 파우치로, 박스테이프는 종이테이프로 바뀌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비닐 사용을 최소화했다. 아이스팩도 파손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을 높인 100% 워터팩으로 변경 도입했다. 마켓컬리는 기존 사용량 기준, 연간 750t의 비닐과 2130t의 스티로폼 감축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통업계 화두는 환경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배송’이다”라며 “친환경 배송 차량이나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들겠지만, 사회적 책임을 생각한다면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



풀무원 녹즙 차량

## 유플렉스 ‘복합 문화공간’ 리뉴얼 오픈

신촌점 4개층 2100㎡ 오늘 개장  
땅굴스토어·아크앤북 등 입점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신촌점 유플렉스가 매장 리뉴얼에 나선다. 젊은층이 몰리는 오프라인 명소를 매장에 선보이려는 의향이 강하다. 글로벌 최대 화장품 편집숍도 유치하는 등 소비주체로 떠오른 밀레니얼 세대 고객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11일 신촌점 유플렉스 4개층(영업면적 2100㎡, 635평)을 리뉴얼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이달 유플렉스 4개층 오픈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유플렉스 매장 전층을 순차적으로 리뉴얼 오픈한다.

우선, 유플렉스 4층에 라이프스타일 편집매장 ‘땅굴 스토어’가 들어선다. 1



세대 파워블로거인 ‘땅굴마님(이혜선)’이 시작한 국내 최대 규모의 플라마켓(벼룩시장) ‘땅굴시장’을 기반으로 탄생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층에게 큰 호응을 얻

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캔들 홀더 브랜드 ‘비터베터’, 수납 트레이 브랜드 ‘볼렉토그래프’ 등 대부분 기존 백화점에서 판매하지 않던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땅굴 스토어’ 매장을 채울 예정이다.

12층에는 백화점 업계 최초로 ‘아크앤북’이 입점한다. ‘아크앤북’은 책과 카페 등 라이프스타일 콘텐츠가 결합한 복합문화 서점으로, 기존 서점과 달리 일상(Daily), 주말(Weekend), 스타일(Style), 영감(Inspiration) 등 취향에 따라 책을 분류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젊은 고객이 즐겨찾는 카페도 층별로 선보이며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편집숍 ‘바인드’, 20~30대의 캐주얼 정장으로 유명한 ‘매그제이’ 등 총 20여 개 패션 브랜드가 새롭게 들어선다.

/신원선 기자

## 정관장, 홍삼톤골드·홍삼톤 리뉴얼 출시

KGC인삼공사가 정관장의 대표 홍삼 제품인 ‘홍삼톤골드’·‘홍삼톤(사진)’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홍삼톤골드, 홍삼톤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홍삼과 까다롭게 관리하고 선별한 전통소재(부원료)를 오랜 시간 내려온 선인들의 지혜와 정관장의 정성을 더해 만든 우리 가족을 위한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제품이다.

전통적인 액상형 파우치 형태로 1993년 출시 이후 2억여 이상 팔린 ‘홍삼톤골드’·‘홍삼톤’은 섭취와 휴대가 간편하여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홍삼의 대중화를 이끈 정관장 대표 홍삼 제품이다. ‘홍삼톤골드’는 깊고 진한 6년근 홍삼(주원료)에 10가지 전통소재(부원료)를 더한 제품으로 부원료인 3가지 귀한 버섯(흰들버섯·표고버섯·노루궁뎅이버



섯)을 기존대비 2배 증량했다. ‘홍삼톤’은 기존 ‘홍삼톤마일드’에서 제품명을 변경하고, 영지버섯(부원료)을 추가해 리뉴얼했다. 또한 KGC인삼공사는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패키지 색상을 적금색으로 변경해 포장을 고급화 했다.

홍삼은 식약처로부터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일상생활 및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은 소비자가 찾고 있다.

/박인용 기자

## 전문점 레시피 담은 밀키트 ‘쿡킷’ 불티

CJ제일제당, 매일 주문 2천건 달해  
별점 5점 만점에 4.7점, 재구매 40%

전문 셰프의 요리 키트 ‘쿡킷(COOK IT)’이 소비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쿡킷’은 신선한 식재료와 전문점 수준의 레시피를 집에서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밀키트 브랜드다.

CJ제일제당은 출시 6개월을 맞은 ‘쿡킷’이 가정간편식(HMR) 시장에서 밀키트 트렌드를 선도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매일 2000건에 달하는 주문이 이뤄지고 있고, 매주 새롭게 선보이는 메뉴마다 품질사태가 발생

할 정도다. ‘콩팥푹커리’, ‘감바스알아히요’, ‘밀피유나베’ 등 매출 상위 메뉴의 경우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주문이 쇄도하며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쿡킷’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고객 후기(별점)는 5점 만점에서 4.7점을 기록 중이고, 하루에도 100건 이상의 후기들이 올라올 정도로 고객 반응이 뜨겁다. 주 소비층인 3545세대들이 ‘쿡킷’ 앱에 인증샷과 후기를 자발적으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구매율도 40%를 훌쩍 뛰어 넘



밀키트 브랜드 ‘쿡킷’ /CJ제일제당

으며 충성 고객도 대폭 늘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KT&G ‘보험 파이프 발렌티’ 첫 선

KT&G가 오는 11일 정통 잉글리쉬 파이프 블렌딩을 적용한 제품인 ‘보험 파이프 발렌티(사진)’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보험 파이프 발렌티’는 지중해 라타키아 인근 지역에서 재배된 최고급 담뱃잎을 사용해 차별화된 향미와 풍부한 맛을 구현했다. 라타키아 잎담배는 정통 잉글리쉬 파이프 블렌딩의 주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 연간 담뱃잎 생산량의 0.002%에 불과한 희귀엽이다. 아울러 일반 필터가 아닌 튜브 필터가 장착돼 보다 깔끔한 흡연감을



보험 파이프 발렌티. /KT&G

느낄 수 있고, 오래 물고 있어도 쉽게 물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엄마들이 쓰는 고급화장품 30대부터 챙기면 '꿀 피부'

## 트렌드 Pick!

### 동인비 진 에센스

발림성·흡수성 무척 뛰어나 리프팅 케어, 피부에 젊은 탄력

어느 날, 친한 후배가 홍삼 스틱을 하나 건넸다. 생각해보니 그 친구는 건강 식품을 참 잘 챙겨먹곤 했다. '나는 기자고 너는 노트북'이란 영혼 없는 표정으로 노트북을 부실 듯 치다가 불현 듯 다급하게 가방을 뒤질 때면 열의 아홉은 좁과 같은 건강 식품이, 나머지는 각종 핑계를 붙인 주전부리가 딸려나왔다.

예전 같으면 '먹고 살려고 고생한다'는 동료애가 먼저 튀어나왔을 텐데, 30대에 접어들고나니 '나도 한 번 먹어보자'는 마음이 먼저다. 신체 기능이 전과 같지 않음을 조금씩 느끼게 되니 안 먹고, 안 찾던 건강 관련 제품에 눈이 가는 것이다. 고급 화장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도 딱 이맘때쯤인 것 같다.

#### ◆사라진 피부 탄력을 찾아서

피부 노화도 여러 증상이 있고, 여러 단계가 있다. 그 중에서도 기자는 탄력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피부가 희고 얇은 편인데, 얼굴 피부의 탄력이 어느 순간부터 견잡을 수 없이 사라지는 느낌에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인비의 '진 에센스'를 사용해봤다. 홍삼에서 엄선된 피부 탄력 성분으로 피부 속과 겉을 촘촘하게 채워주고, 피부 층층이 끌어올린 리프팅 케어로 탄력있는 젊음의 피부로 바꾸어 준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설명서대로 사용해봤다. 토너 사용 후 적당량을 털어 입가와 눈가 피부부터 마사지하듯 힘을 주어 펄펄리주면 된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발림성과 흡수성이 무척 뛰어나다는 점이다. 점성이 어느 정도 있는 쫄쫄한 텍스처에도 불구하고 발랐을 때 끈적이고 번들거리거나 무겁지 않다. 펄펄리는 순간 흡수돼 부드럽고 보송하게 마무리할 수 있고, 촉촉함이 굉장히 오래 가는 편이다.

개인적으로는 제품을 바른 뒤 화장할 때에 유분기가 올라오지 않는 편이



동인비가 10월부터 '탄력의 탄성을 올리다' 캠페인을 진행한다. /KGC인삼공사



동인비 '진 에센스'. 점성이 있는 쫄쫄한 텍스처지만 발림성이 좋아 부드럽게 마무리된다. /김민서 기자

라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사용해도 괜찮았다.

주름개선 효과는 모르겠다. 바른 뒤 쫄쫄한 느낌이 들긴 한다. 참고로 동인비의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95%가 '얼굴 선(윤곽)이 또렷하게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 ◆진입장벽 너무 높네

제품의 첫 인상을 떠올려보면 '올드하다'는 것. 단순하고 고급스러운 박스에 화이트와 로즈골드로 된 제품 용기까지, 엄마 화장대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디자인이란 생각이 들었다.

홍삼을 주 성분으로 한 제품인 만큼 향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펌프를 손등에 짜는 순간 홍삼 향기가 진하게 퍼져나오는데 젊은층이 선호하는 향은 아니란 생각이 우선 들었다. 다만, 시간이 지난 뒤 잔향이 의외로 괜찮다.

다소 높은 가격대와 적은 판매처는 또 다른 진입장벽이다. 물론 가격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에서 꼭 사와야 할 제품 중 하나로 자주 오르내리는 만큼 호기심이 동하면 한 번쯤 도전해봐도 괜찮을 제품으로 추천한다. 제품은 50ml에 정가 기준 22만 원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토종 발효종으로 구운빵, 맛과 풍미 '가득'

## 파리바게뜨 '시그니처 브레드' 출시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토종효모와 토종 유산균을 혼합한 발효종으로 만드는 '시그니처 브레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그니처 브레드'는 SPC그룹이 특허 받은 토종효모(SPC SNU 70-1)에 토종유산균 4종을 더한 발효종을 사용해 맛과 풍미를 더욱 높인 제품이다.

'시그니처 브레드'는 발효취가 적고, 고유의 상큼하고 구수한 풍미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다. 특히 저온 숙성으로 발효 시간이 길며, 발효 과정에서 반죽 내 소화저해물



파리바게뜨 시그니처 브레드 /SPC그룹

질이 감소한다.

이번에 출시된 '시그니처 브레드'는 총 5종으로 엄선된 원료와 30여년간 축적된 다양한 공법과 노하우를 적용해 만든다.

/박인용 기자

# 아산병원팀, 폐암 오가노이드 개발 맞춤형 항암제 정밀의학 시대 연다

## 장세진 교수·김민서 박사

오가노이드 배양기술 세계 최초 개인별 특성 그대로 재현해 적용 시험관서 다양한 항암제 시험치료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폐암 오가노이드를 배양하는데 성공했다. 이제는 실험용 쥐 대신 폐암 환자들의 개인별 특성을 그대로 재현해 항암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맞춤형 정밀의학 시대가 열리게 됐다.

서울아산병원은 10일 병리과 장세진 교수·의생명연구소 김민서 박사팀이 환자의 폐암세포를 배양해 개인별 특성을 그대로 재현하는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배양 기술을 확립하고, 항암제 개발 과정에서 약물 유효성을 검증하는 전임상시험 암 모델로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 교수팀은 정상세포는 억제하고 폐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키워 암 조직구조를 이루게 하는 오가노이드 배양기술 개발에 세계 처음으로 성공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의 편집자로부터 '주목할 만한 연구'에 최근 선



장세진 병리과 교수



김민서 의생명연구소 박사

정됐다.

또 이를 활용한 바이오칩 약물평가 플랫폼도 함께 개발돼 환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맞춤형 항암제를 찾을 수 있게 됐고 폐암 신약개발 과정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폐암은 암 사망 원인 중 1위인 고위험 암으로 혁신적인 항암제와 치료법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폐암은 조직학적 특성과 유전체 변이 특성이 다양해 대체 플랫폼인 암 오가노이드의 개발이 절실했다.

암 오가노이드란 환자의 조직 특성을 체외에서 재현한 암 모델로, 환자의 암 조직을 소량 채취해 생체 내 기질과 비슷한 구조에서 3차원으로 배양한 암 조직 유사체다. 배양 접시 바닥에서 2차원으로 암세포를 배양하는 경우와

달리 3차원으로 배양하면 암조직의 기능과 구조까지 평가할 수 있다.

장 교수팀은 환자의 폐암 조직을 소량 채취하여 생체와 유사한 구조에서 3차원으로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폐암 세포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여러 성장인자들을 조합해 최적화된 배양액을 만들어 정상세포는 억제하고 암세포만 자라게 해 생체와 유사한 암 조직구조를 이루게 하는데 성공했다.

연구진이 배양에 성공한 환자유래 폐암 오가노이드는 모체가 되는 각 환자의 폐암 조직 유형과 일치했고, 유전체 변이 특성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다.

특히 배양된 환자의 폐암 조직은 살아있는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환자의 암 아바타로서 시험관 내에서 다양한 항암제 시험치료를 한 후 최적의 항암제를 선택해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환자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동물실험을 대신할 수 있어 실험동물의 희생도 줄어들며, 신약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박미혜 교수,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장

(이대서울병원)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박미혜 교수(사진)가 최근 열린 제 22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에서 제 12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고령임신, 다태아임신, 태아 기형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정밀 초음파 전문가인 박미혜 신임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장은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산부인과 석박사를 취득했다.

또 이화여대 의과대학 기획부장, 이대목동병원 모자센터장, QPS센터장, 교육연구부장 등을 역임했고 이대서울병원 개원 후 이대서울병원 진료부원장을 맡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는 산부인과 영역의 초음파 관련 교육과 연구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여성 건강 향상에 기여

하고 있는 학회로 제 31회 세계산부인과초음파학회를 유치해 2021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 스타벅스, 수익기부매장 확대... "지역 살려야죠"

##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 확대 수익의 일부 지역사회 환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내년부터 더욱 강화해 나간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2020년 상반기에 한국에서의 두 번째 커뮤니티 스토어를 오픈하고, 향후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을 지속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커뮤니티 스토어는 스타벅스만의 차별화된 매장 수익기부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스타벅스는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 스토어에 대한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해 나가고 있다. 현재 커뮤니티 스토어 프로그램은 세계 80개국의 스타벅스 중 한국과 미국, 태국 등 3개 국가에서만 운영 중이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이번 한국의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 오픈 및 향후 점진적 매장 운영 확대 발표는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스



10일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존 컬버 스타벅스 글로벌 총괄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송호섭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이사(왼쪽 두번째)에게 커뮤니티 스토어를 상징하는 녹색 앞치마를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스타벅스커피

타벅스 코리아 리더십 컨퍼런스' 행사에 깜짝 방문한 존 컬버 스타벅스 글로벌 총괄 사장에 의해 이뤄졌다.

'스타벅스 코리아 리더십 컨퍼런스'는 3~4년에 한 번씩 전국 모든 매장의 점장들을 초청해 진행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 파트너 모임 회의로, 존 컬버 글로벌 사장은 한국의 스타벅

스 점장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회의 자리에 예고 없이 참석해 깜짝 격려사를 진행했다. 여기에서 존 컬버 사장은 내년도에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을 오픈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수익기부형 매장을 한국 내에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공개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우리금융, 국내외 대대적 사회공헌활동 전개

내달까지 '함께여서 더 좋은 우리' 캠페인 총 26개국 462개 네트워크에서 실시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10월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우리은행 등 전 계열사에서 대대적인 국내외 사회공헌활동을 벌이는 '함께여서 더 좋은 우리'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의 사회공헌 캠페인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 계열사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총 26개국 462개 네트워크에서 오는 1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 캠페인은 각 국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현지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좋은 모범사례로 정착돼 가고 있다.

특히, 이 캠페인의 첫 번째 행사로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가운데)이 오지철(왼쪽) 하트하트재단 이사장,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특성화고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젝트'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오지철 하트하트재단 이사장,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

무총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특성화고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을 위한 코딩교육 장학금 지원과 우리금융그룹 내 IT 전문기업인 우리에프아이에스 직원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캠페인이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전달, 헌혈 캠페인 헌혈증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강원도 산불 이재민 피해복구 기금 기부 등 재난재해 피해복구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 '초록창' 바꾼 '빨간창'



기자 수첩

김나인 (산업부)

짧은 휴가를 얻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사전 정보를 얻고 싶어 포털 블로그 후기를 찾아봤다. 인위적 말투에 온통 칭찬뿐이라 믿음이 가지 않아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유튜브를 보라"라는 조언이 들어왔다. 여행 정보 끝판왕부터 무계획으로 떠나기, 추천 이유, 꿀팁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다. 초록창(네이버)이 아니라 빨간창(유튜브)이 대세라는 이유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유튜브 대세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한국인의 유튜브 사용 시간은 1년 사이에 38% 증가해 카카오톡, 네이버를 뛰어넘었다.

우리가 유튜브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유는 통신사업자가 만든 인터넷망 때문이다. 유튜브가 자동차라면, 통신망은 고속도로다. 문제는, 이용자가 늘면 트래픽도 폭증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인프라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트래픽을 유발하는 유튜브는 해외기업이라는 이유로 이용

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 그보다 훨씬 적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국내 기업들은 연간 몇백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국내사업자의 불만은 이번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터졌다. 한 콘텐츠 사업자는 "좋은 고속도로를 뚫어도 틀게이트비가 비싸면 아무 자동차도 달리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구글 코리아대표는 "통신사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네트워크에 막대한 투자를 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기회를 준다"며 동문서답의 답변을 늘어났다.

글로벌 동영상 시대에 이같은 논쟁이 헛바퀴를 돌지 않으려면 그에 맞는 규칙을 세워야 한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경쟁의 장은 글로벌 단위로 넓어졌다. 더구나 5G 시대가 되면 더 큰 용량의 콘텐츠와 데이터가 망을 오가면서 이해관계 충돌은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해외 사업자에 제대로 이용료도 받지 못하면서 비용 부담을 국내 사업자에게 충당한다는 불멘 목소리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시대가 바뀌었으면 흐름에 맞게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다시 공정하게 마련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silkn@metroseoul.co.kr

## CJ대한통운 봉사활동 누적 1만2500시간 돌파

CJ대한통운은 올해 들어 3·4분기까지 임직원들의 누적 봉사활동 시간이 1만2428시간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이같은 추세면 올해 봉사활동 시간은 총 2만 시간을 돌파할 전망이다.

CJ대한통운 임직원 봉사활동은 2017년 이후 2년 연속으로 2만 시간을 넘어서 주목 받았다. 올해 3분기까지의 기록인 누적 1만 2428시간을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515일, 1

년 5개월에 달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 2375명이 평균 5시간 이상을 기록하는 유의미한 수치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특히 1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함께한 임직원은 올해만 319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체 봉사왕 유력후보인 임직원 A씨는 휠체어 세척, 장보기 봉사활동, 숭가꾸기 등 올해만 6회에 걸쳐 31시간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해 나눔을 몸소 전파하기도 했다.



CJ대한통운 신동휘 부사장(오른쪽)을 비롯한 임직원이 지난달 17일 경기도 광주 도평초등학교에서 아동들에게 안전수업을 나누고 있다.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지역공동체와 유기적 관계를 높이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운세 10월 11일 (음 9월 13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지는 입을 보면 나를 보는 듯. 48년생 주변이 어수선하니 언행에 주의하고 사람조심. 60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절망은 금물. 72년생 언쟁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84년생 유혹이 많으니 마음을 굳건히.
- 소** 37년생 자식은 도움을 줘도 당연한 권리로 생각. 49년생 행복이 주변에 있으니. 61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73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85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하게.
- 호랑이** 38년생 죽순은 비가 오면 더 푸르러 지니 고난은 참고 견디라. 50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다. 62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74년생 골치 아픈 일은 부모님과 상의. 86년생 휴식이 없는 바쁜 하루여도 보람.
- 토끼** 39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 가라. 51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는 날이니 좀 서글프다. 63년생 아랫사람 말을 잘 경청. 75년생 소금장사나 가는데 비 오는 격이니 매사에 조심. 87년생 공과 사를 잘 살펴보라.
- 말** 40년생 사랑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52년생 자식이 있어서 행복. 64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갈등이 시작. 76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리니 흡족하다. 88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으니 희망을 찾자.
- 뱀** 41년생 자식이 나보다 배배 낫다. 53년생 자존감을 나를 지켜주는 힘. 65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으니 앞만 보고 전진. 77년생 함께하는 상대를 의심하지 마라. 89년생 당장 급여가 적어도 보람을 가져서 미래를 발전시켜라.

- 말** 42년생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하지 마라. 54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좋은 꼴을 얻지 못한다. 66년생 인맥을 이용하여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된다. 78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둘 곳을 모르고 방황. 90년생 돌 중 하나는 양보해야.
- 양** 43년생 검은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55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 67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라. 79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 91년생 능력이 없으면서 기대가 커져 실망도 크다.
- 원숭이** 44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56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무난히 해결. 68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여 준다. 80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한 때. 92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무르기도 어렵다.
- 닭** 45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자식 사랑뿐. 57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 69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왔으니 힘껏 노력. 81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93년생 위기를 기회로 잘 이용할 수 있다.
- 개** 46년생 오랜 적선이 내게로 돌아온다. 58년생 나의 특기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니 기쁘다. 70년생 명예는 높아지나 실속은 그다지 없다. 82년생 글을 읽음은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라 했다. 94년생 선택은 자유이나 책임은 따를 것.
- 돼지** 47년생 표리부동(表裏不同)은 결국 내 흥도 드러난다. 59년생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마라. 71년생 발로 뛰는 일을 찾아라. 83년생 명상을 하며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라. 95년생 바람이 불어도 정당한 기본은 흔들리지 마라.



## 김상희의四季 화로 인해 다른 화를 입는다면

인간은 탐진치(貪瞋痴) 삼독으로 인해 끝임 없이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인간들이나 동물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의 삶은 일찍이 사바세계(娑婆世界) 중에서도 욕계라 하여 탐진치라는 세 가지 독(毒)의 번뇌를 겪어내야 한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五蘊)으로 비롯되는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하는 세계를 말한다. '사바'라는 말은 인도의 고대어인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다. 번뇌와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세계라는 뜻이다.

보살의 입장에서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수고를 참고 견디어 내야 하는 세계가 된다. 그런 까닭으로 불교에서는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수행 방법으로 인욕을 으뜸으로 꼽는다. 어느 날 어떤 이가 이웃이나 가족의 불화로 불을 붙이고 자신도 화상을 입어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의 뉴스를 본다. 가슴이 미어진다. 어떤 일이든 화를 낼만한 일에 화를 내는 것은 당연히 여기지만 불가에서는 다른 각도로 보고 있다. 모든 재앙과 액화의 원인인 화를 내는 것 자체를 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화의 원인을 가만히 따져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오는 감정이다.

또한 화를 내더라도 그 화가 제2 제3의 부정적인 결과를 몰고 온다고 보기에 화가 올라올 때 한 발자국 떨어져서 호흡을 가다듬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화를 내는 것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화의 본질은 제2 제3의 화살을 맞는 것과 다름이 없다. 화로 인해 또 다른 화를 입으니 지혜로운 일은 아니다.

'김상희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2				
	5						3	
	7	6		8			9	
1	3					2		4
			6					
7	9			6				8
	5		3		4		8	
	4				9			
2		7		9				

								5
	6							
1	5						9	4
2		1					8	9
	3		2		4			7
					3			
4			1		6			7
3			5		8			6
	9			7				

스도쿠 정답

8	7	5	6	8	4	9	1	2
2	6	9	1	5	7	8	3	4
9	8	1	7	2	8	4	5	6
8	9	5	7	1	6	2	3	4
6	1	2	8	9	7	3	4	5
7	5	2	4	6	8	9	1	3
1	6	7	8	5	9	2	3	4
2	9	8	1	2	6	5	3	7
5	4	8	2	7	1	6	9	3

문제 제공= **보스**

**metro** 메트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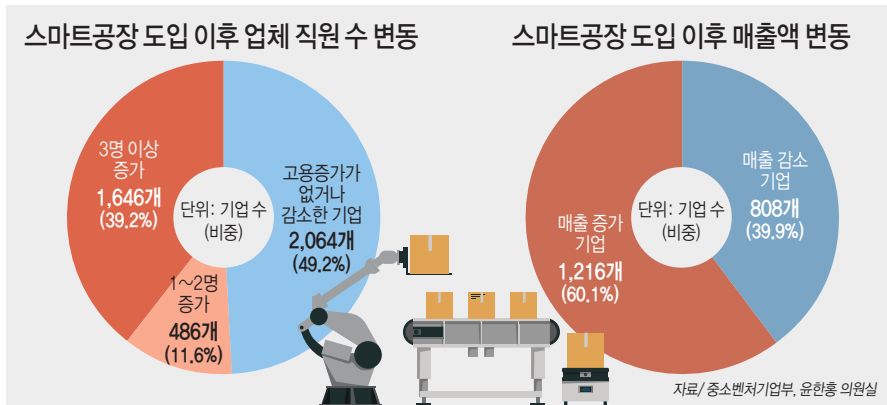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9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02호



# 스마트공장사업 성과분석 놓고 정부 vs 野 ‘갑론을박’

같은 자료 해석따라 평가 엇갈려  
중기부 “도입 후 평균 3명 고용”  
윤한홍 의원 “기업 절반 고용 ↓  
예산 활용 적정하지 검토해봐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년간 30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지원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의 고용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앞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자료를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들의 고용이 평균 3명씩 늘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이 국정감사 기간 중 반박자료를 내놓으면서다.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관련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 자체 분석한 결과 사업 참여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9.2%의 기업에서 고용이 정체됐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의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고용 효과를 놓고 중기부는 ‘기업당 평균 3명 고용 창출’을, 윤 의원은 ‘2곳 중 1곳은 고용 정체 또는 감소’를 각각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시작한 중기부는 지난해까지 관련 솔루션 공급업체에게 총 3283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 5003곳을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해 지난 5월 관련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외부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의 경우 평균 4.2% 늘어 기업 한 곳당 3명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미만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84.9%로 50인 미만(5.9%), 100인 미만(3.2%) 등을 훨씬 능가했다.

다만 가장 고용 창출 효과가 큰 10인 미만 기업은 전체 표본의 8.9%에 그쳤다. 이외에 50인 미만이 52.4%로 가장 많았고, 100인 미만(19.7%), 100인 이상(16.9%) 순이었다.

그런데 윤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를 살펴보면 중기부의 조사 대상 기업(5003곳) 중 4196곳이 실제 설문에 응답했는데 이 가운데 49.2%인 2064개 기업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이후에도 고용이 늘지 않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1~2명이 증가한 기업도 전체의 11.6%인 486개에 달했다.

같은 자료를 놓고 해석에 따라 ‘평균 3명 고용 vs 기업 절반만 고용 창출’로 나뉜 것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중기부로부터 4196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후 증가 또는 감소한 고용 현황 자료를 받아 변경 인원수대로 나열한 결과 지원 기업의 절반 가량은 고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스마트공장의 고용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 방법이 가장 논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 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이후 699명이 늘어난 기업이 고용 창출 1위를 기록했

다. 반면 459명이 감소한 기업도 있었다. 고용 효과를 본 기업의 경우엔 100명 이상이 43곳, 50명 이상~99명 이하가 90곳, 10명 이상~49명 이하가 680곳, 1명 이상~9명 이하가 1319곳이었다.

인원이 변동 없는 기업도 264곳에 달했다. 거꾸로 고용이 감소한 곳은 1명 이상~9명 이하가 1266곳, 10명 이상~49명 이하가 473곳, 50명 이상이 61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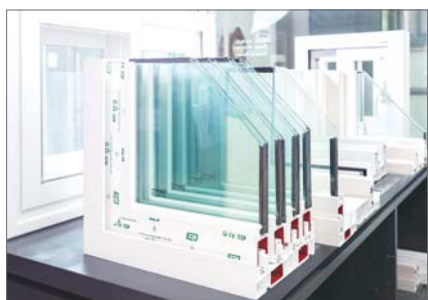
윤 의원은 “고용 감소 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기업도 응답기업의 39.9%에 달하는 등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일부 기업의 매출 및 고용이 급증한 탓에 전체적인 평균이 높아졌을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5년간 30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이 현실에서 바람직한 예산 활용인지는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올해에도 4000개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KCC “창호 교체시 로이유리 업그레이드”

흠씨씨인테리어 구매 고객 대상



로이유리가 적용된 KCC 창호.

KCC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자사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인 흠씨씨인테리어를 통해 창호를 교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로이유리 무상 업그레이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1월 15일까지 전국 흠씨씨인테리어 매장이나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창호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KB국민카드로 결제시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가능해 창호 교체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로이유리는 동일한 복층 유리일 때 일반 유리에 비해 약 45% 향상된 단열 성능을 보여준다. 유리 표면에 은금속 층을 코팅해 단열 효과를 최대로 높였기 때문이다. 일반 유리창은 대부분 복층 유리로 유리 두 장 사이에 빈 공간을 뒤대류, 전도, 복사 세 가지 열 전달 경로 중 대류와 전도를 차단해 열의 이동을 막는다.

하지만 유리를 최대한 두껍게 하거나 빈 공간을 진공으로 만들더라도 복사에 의해 열이 전달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는 태양에서 발생한 열이 진공 상태인 우주를 통과해 지구에 도달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전자기파(적외선)가 유리창을 뚫고 열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사열까지 차단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낮은 방사율을 뜻하는 로이(Low-E: low-emissivity) 유리다. 로이유리는 창을 통해 들어오는 가시광선은 대부분 안으로 투과시켜 실내를 밝게 유지하면서도 적외선 영역의 복사는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로이유리를 적용하면 겨울에는 안에서 발생한 난방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여름에는 바깥의 열기를 차단하는 등 단열 효과가 커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김기문, 美 방문해 개성공단 재개 협조 요청

(중기중앙회장)

4개월 만에 개성공단 국제 행보  
아태소위원장 등 만나 재개 설득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또 다시 미국으로 떠난다. 중기중앙회는 김 회장이 오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리는 미주민주참여포럼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하는 브래드 셔먼 아태소위원장을 만나 개성공단이 국제 제재에서 면제돼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미 의회의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6월 11일에도 개성공단 재개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미 하원을 방문, 브래드 셔먼 위원장을 만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바 있다. 아울러 14일(현지시간)엔 세계한인무역협회(OKTA)가 개최하는 제 24회 한인경제인대회에 초청 받아 참석한다.

올해 대회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들과 유관기관 등 1000여명 넘는 기업인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외 한인 바이어와 국내 중소기업 간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상담회도 진행한다. 중기중앙회는 해외 한인 기업들과 국내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16일(현지시간)에는 니나 하치치안 LA시 국제부문 부시장과 간담을 갖고,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투자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교환한다.

중기중앙회는 미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를 전달하고 LA시와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 예정이다.

또한 미국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11개사를 파견해 라스베이거스와 LA에서 현지 바이어와 매칭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라스베이거스에서는 OKTA와 협력해 상담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공영쇼핑, 오늘·15일 ‘인삼대축제’ 특집

공영쇼핑은 인삼 수확기를 맞아 11월 15일 이틀간 ‘2019 대한민국 인삼대축제’ 특집 방송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4시간 동안 진행되는 특집 방송에선 총 9개 지역의 햇수삼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특집 방송에서는 ▲강화·경기 동부·안성 수삼(11일 오전 11시 30분) ▲강원·충북 수삼(11일 오후 5시 40분) ▲서산·금산 수삼(15일 낮 12시 40분)

▲전북·풍기 수삼(15일 오후 4시 35분)을 각각 선보인다. 가격은 크기에 따라 5만6900원부터 7만2900원까지다.

9개 지역의 수삼 모두 10월 이후 수확한 햇수삼이다. 수삼은 가공하기 전의 인삼으로 보관기간이 짧아 수확기에만 즐길 수 있다. 방송에선 한식전문가인 신호섭 셰프가 출연해 튀김, 샐러드, 담금주 등 다양한 수삼 활용법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녹·부식 걱정 뚫... 스테인리스 전기 온수기

귀뚜라미 용량별·벽걸이형 등 6종  
온수 공급력 우수하고 내구성 강화

귀뚜라미는 스테인리스 전기온수기 신제품 6종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온수탱크 전체를 세균과 녹, 부식에 강한 고품질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해 온수의 청결성과 제품의 내구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온수탱크 주변으로는 단열성이 우수한 고밀도 폴리우레탄폼을 촘촘하게 삽입해 보온성을 높였다.

온수탱크 용량도 1 l, 30 l, 50 l로 다양화하고 용량별로 벽걸이형(하향식)과 바닥설치형(상향식) 모델을 모두 출시해 사용 용도와 설치환경에 맞춰 자유롭게 모델을 선정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직접 가열식 제품으로 온수 공



급 능력이 뛰어나고 콤팩트한 사이즈로 공간 활용도가 높으며 수도관과 콘센트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설치가 간편하다.

이상 과열에 의한 화재나 급격한 온수탱크 내압 상승으로 인한 제품파손을 방지하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안전 밸브 등 안전장치까지 든든하게 갖추고 있다. 가격은 용량에 따라 20만~30만원 대다.

/김승호 기자

## 시멘트협회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지정

한국시멘트협회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시멘트 제품(KS L)의 전문적·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멘트 제품에 대한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지정은 주요 수요처인 레미콘과 건설업계의 더욱 다양해진 품질 요구에 시멘트협회가 주도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향후에도 지속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시멘트 제품에 대한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지정으로 한국시멘트협회는 KS인증심사 지원 및 단체인증사업을 통한 품질관리 전문성 확대 등이 가능해져 고객 신뢰 확대와 시멘트산업 위상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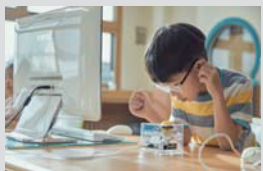
# DMZ 대성동 5G 빌리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이곳에  
KT 5G가 갑니다  
5G만큼은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누구나 **kt 5G**



DMZ 대성동 5G 빌리지 다빈이네 가족



#### KT AI 에듀팩

대성동초등학교 아이들은  
KT AI 에듀팩을 통해  
AI 코딩을 배웁니다



#### KT 노지 스마트팜

대성동에서는 밭에 갈 때도 군인과  
동행해야 했지만, 이젠 원격으로  
농경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KT MR 스포츠

학교 강당에 마련된 혼합현실(MR)  
체험공간을 통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영암 자동차경주장, 온 가족이 즐기는 복합장소로 탈바꿈

청소년 수련시설, 스포츠파크 조성  
케이블카 등과 연계 관광자원 확충

영암 F1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청소년·가족 단위 복합문화단지로 변신을 시도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F1 자동차경주장의 유희시설·공간 활용 극대화 및 모터스포츠 프로그램 강화, 관광자원 확충 등을 위해 168억원을 투입해 청소년 수련시설, 자동차복합문화공간, 레저 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한다.

전남도는 경주장내 경주팀원들이 머물렀던 팀빌딩과 패독(paddock) 빌딩을 리모델링해 유스호스텔과 직업체험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관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F1 팀 빌딩은 영암호를 배경으로 조성된 만큼 숙박이 가능하게 용도 변경

이 이뤄지면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전남도는 이런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을 위해 44억원을 내년도 예

산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총 사업비 106억원을 들여 자동차복합문화단지 조성한다. 이곳에는 자전거 도로·트래킹코스, VR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복합문화공간과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전기바이크 등을 탈 수 있는 키즈 드라이빙 체험시설, 드론 축구장을 갖춘 레저스포츠파크, 모터레포 츠게임, 전기카트체험시설, 도시숲 등이 들어선다.

또 모터스포츠 주변 확대를 위해 도민을 상대로 한 교통안전 교육과 능력 협회 기업연수, F3 국제대회 개최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제자동차경주장과 목포 해양케이블카 및 주변 골프장

등을 연계한 신규 관광자원 확충 등도 추진된다.

전남도는 이달내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심의에 들어간다. 또 오는 11월 말까지 자동차복합문화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F1경주장이 자동차경주와 레이서 등 전문가들의 활용도는 정점을 찍고 있으나 앞으로 청소년, 가족단위 일반인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유스호스텔이 들어서면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해 머무는 장소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인천 미추홀구 뉴딜사업 선정... 1200억 규모

인천 미추홀구는 용현2동과 도화1동 일원이 정부에서 지정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비 1200억원이 넘는 규모로 미추홀 지역 원도심 재생사업에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미추홀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용현동 568-83일원인 ‘용현2동 비룡공감2080’과 도화초등학교 일원인 도화1동 수봉마을이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전국 낙후 지역 500여 곳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해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미추홀구는 국비 공모사업에 대비해 2018년 하반기부터 준비에 돌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과 인천도시공사와 협력을 통해 적합한 재생 방향을 설정했다.

또 올해 초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과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실현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사업대상지인 용현2동과 도화1동 지역은 각각 일반근린형과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 ‘용현2동 비룡공감 2080’ 168억원, 수봉마을은 1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용현2동 비룡공감 2080 지역은 옛 터미널 상권 쇠퇴와 공간단절로 구도심 낙후지역이고, 도화1동 수봉마을은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등으로 단절된 지역이다.

/인천=백용찬 기자



장성 황룡강 노란꽃 잔치

10일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열리고 있는 황룡강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장성군

**오늘의 날씨**

10월 11일(금)  
음력 : 9월 13일

수도권 날씨  
**14~2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36 | 해질 / 18:02

연천 9/25, 동두천 10/25, 가평 8/25, 양평 10/25, 용인 14/24, 평택 11/25, 백령도 16/21, 파주 10/25, 서울 14/26, 수원 14/24, 인천 14/2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현장 민원 청취할 것”... 기업별 공무원 배치

광양시 ‘1기업 1공무원 담당제’ 시행  
10인 이상 기업에 간부공무원 매칭

광양시는 지난 3분기 중 ‘1기업 1공무원 담당제’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청취해 이를 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1기업 1공무원 담당제’는 지역 내 등록된 10인 이상 275개 기업에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행정후견인으로 1:1 매칭하고 분기별로 직접 기업을 찾아가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수렴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시책이다.

이번 3분기에는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역 내 기업의 피해 동향을 파악하고 시승격 30주년 동침 안내와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집중 홍보했다.

활동기간 동안 ▲태풍 이후 초남공단 주변 방역지원 ▲울촌산단에서 광양항 방면 도로(교량) 설치 ▲회사 건물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열악한 인프라 해결과 생활민원 등 현장답변을 포함해 총 12건의 건의가 이뤄졌다.

이들 건의 내용은 시 관계부서 8곳과



광양시 3분기 ‘1기업 1공무원 담당제’ 기업민원 해결.

/광양시

7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광양시 윈스톱 기업민원 해결 지원단’에서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기업에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다.

또한 규제 및 제도개선 등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도와 정부 등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게 된다.

정승재 기업지원팀장은 “기업과 공무원이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일자리 넘치는 전남 제1의 경제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더 기울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꼭 필요한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시책을 통해 지난 상반기 동안 건의사항 59건을 수렴하고 그 중 산업단지 내 환경정비 및 주차단속, 인력 및 자금난, 기술사업화 등을 포함한 49건은 해결했다. 이 밖에도 광양시 생애주기별 정책 홍보와 타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들을 광양에 전입 유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광양(전남)=김용학 기자 jjjacecom@

## 전남 미제사건 1.8만건... 프로파일러 ‘0명’

2018년 이직 후 현재까지 공식  
전국에 배치된 프로파일러 35명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33년 만에 범인 이춘재가 검거되는 등 미제사건 해결에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크지만, 전라남도도에 배치된 경찰 프로파일러는 단 한 명도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전국에 배치된 프로파일러는 35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05년 프로파일러 첫 선발 당시 전국 17개 지방청에 프로파일러 2인 1조를 배치할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전북경찰청, 경남경찰청, 제주경찰청이 최

초 목표인 2인에 미달한 1명의 프로파일러만 채용하고 있었으며, 전남청이 현재 채용한 프로파일러는 0명이었다.

반면 전남도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미제사건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총 1만 8810건에 이르고 있어 프로파일러를 통한 사건 해결이 절실한 실정이다.

기간별로는 미제사건으로 분류된 지 3년 초과 5년 이내인 미제사건은 1만 3146건이었고, 3년 이내의 미제사건은 9075건이었다.

정인화 의원은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2018년 초까지 근무하던 프로파일러가 이직한 이후 현재까지 공식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1만 9000건에 달하는 미제사건뿐만 아니라 전남 내 다양한 중요범죄 해결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 인천 남동구 경로당 한방진료 만족도 91%

인천 남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한방진료사업에 대해 이용자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의료사각지대인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는 한방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당 한방이동진료 사업’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진료가 도움이 됐으며 재이용하겠다는 이용자도 91%인 것으로 나왔다.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이동진료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남동구에서 한방 전문 의료 인력인 한의사와 간호사를 구에서 별도 채용, 진료반을 구성해 지역 내 희망 경로당을 대상으로 순회 한방진료로 침·부항 등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



# ‘서울형 주택바우처’, 5만원 쥐꼬리 지원에 수급자 외면

고시원까지 수혜 대상 늘렸지만  
실제 보조 받는 가구는 4.79% ↓

동일 조건에 최대 18만원 더 받는  
주거급여지원 사업으로 몰려  
까다로운 절차, 신청 기준 등 지적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단위: 가구, %,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지원가구	6,680	6,413	6,194	5,695	5,792	5,695	5,526	5,422	47,417
증감 수	-	-267	-219	-499	97	-97	-169	-104	-1,258
증감률	-	-4.00	-3.41	-8.06	1.70	-1.67	-2.97	-1.88	-2.90
집행액	389	371	354	330	330	330	318	312	2,734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취약계층에게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을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했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가구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월평균 약 3%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에는 지원금이 적고 신청 기준과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시에 따르면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가구는 올해 1월 6680가구에서 2월 6413가구, 3월 6194가구, 4월 5695가구, 5월 5792가구, 6월 5695가구, 7월 5526가구, 8월 5422가구로 지난 8개월

간 18.8%(1258가구) 감소했다. 월평균 2.9%씩 줄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아래이거나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부터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시행해왔다. 올해 총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작년 11월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

고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시는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주택 거주자에게만 지원했던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7월부터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매달 5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이 늘었음에도 임대료를 보조받는 저소득층 가구는 줄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로 월세를 보조받은 가구는 6월 5695가구에서 7월 5526가구, 8월 5422가구로 지원 대상 확대 후 4.79%(273가구) 감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을 지난해 중위소득의 43% 이하에서 올해 44% 이하로 확대하면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 대상자들이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1%만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자들이 기준 중위소득 43~44% 구간에 몰려 있어 실제 수혜자 중에서 6% 정도가 이 동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8월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비를 보조받은 가구는 월평균 1.27% 증가했다. 주거급여수급 가구는 올해 1월 17만8764가구에서 2월 18만1403가구, 3월 18만3739가구, 4월 18만7179가구, 5월 18만9864가구, 6월 19만1787가구, 7월 19만3485가구, 8월 19만5243가구로 최근 8개월 동안 9.22%(1만6479가구) 늘었다.

주거급여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

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비 1234억 3400만원을 포함 총 3879억3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월 최대 23만3000원(1인 가구 기준)을 받을 수 있어 같은 조건이라면 월 5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는 것보다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주거복지제도 수혜자는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정부에서 중위소득 43% 이하를 지원하면 시는 중위소득 44~60%를 지원하는 식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형 사회보장 제도가 부서별로 다양하게 생겨나다 보니 수급자 입장에서는 여러 개를 신청해야 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 신청 시스템의 서류들을 통일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신청 서류를 간소화해 주거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미세먼지 무단배출 사업장 67곳 적발

서울시 자동차정비 공장 57곳 등  
기준치 120배...40곳은 검찰 송치

서울시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6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물질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사업장 1곳당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탄화수소가 1만2075ppm에 달해 기준치(100ppm)를 12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간 미세먼지 발생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1개 업체당 622kg에 달한다. 점검반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92곳에서 공회전 여부, 오염물질 배출실태 등을 확인했다. 자동차 정비 공장 57곳, 무허가 도장 사업장 6곳, 금속 열처리·표면처리 사업장 4곳 등 총 67곳이 적발됐다.

시는 이 중 40곳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나머지 27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자동차정비업소 밀집지역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전수 조사하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배출 집중 관리 지역, 취약계층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정제 도입에 대비해 이뤄졌다”며 “생활권 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미세먼지 없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제1회 전국체전 개최지 기념표식 제막식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및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제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기념 역사문화유적 표식 제막식을 하고 있다. 역사문화유적 표식은 사라진 문화유산 터나 역사적 사건 현장을 기념하고자 관련 내용을 표식에 담아 설치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 경기도 특사경 가짜 친환경업체 적발

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 표시나 광고판을 부착해 판매한 농가와 유통업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6일~9월 26일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유통판매업소 등 216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친환경농어업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41개 제품에 대해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 결과 포도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항목은 미인증제품에 인증 표시·광고(9곳),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곳), 인증 제품과 미인증 제품을 동일 장소에서 혼합 작업(1곳) 등이다.

가평군 A 씨는 지난해 8월 친환경 인증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자신이 생산한 포도 5kg들이 40상자에 올해 9월까지로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했다. A 씨가 판매한 포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금지된 잔류농약(이미녹타린 0.0343mg/kg)이 검출됐다. /의정부(경기)=김승열 기자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시민 의견 듣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을 활용, 시민 소통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보다 폭넓은 소통 요구가 있었던 만큼 시민 목소리를 더 치열하게 담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경청·토론·공개’를 기본 방향으로 시민과 적극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전 과정은 온·오프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한다.

전문가 공개토론, 시민 대토론회, 현장 소통, 합동 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 서울시 영유아·산모건강 위해 가정 방문

서울시는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국가 정책으로 채택돼 내년부터 전국 20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은 보건소의 영유아 건강 전문 간호사가 출산 가정에 찾아가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살피는

전문가 공개토론은 18일부터 시작해 4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1차에서는 논의 주제를 열어두고 4차까지 토론의 쟁점을 정리해가는 형태로 진행된다.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단체,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시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시민 대토론회는 원탁토론 방식으로 운영된다. 희망자 총 300명을 모집해 12월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두 차례 연다. 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이면 참여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320시간의 전문 교육과정을 거친 찾동 간호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모유 수유, 아기 돌보기, 산후 우울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며 직접 도와준다. 도움이 더 필요한 가정은 아이가 두 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문해 관리해준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교통정책 전담 ‘교통본부’ 출범

31개 시·군 교통수단 통합관리 등

경기도가 내년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앞서 전 단계로 경기도시공사 내에 ‘경기교통본부’를 출범했다.

경기도는 10일 오전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에서 교통공사 설립의 디딤돌 역할을 할 교통본부 개소식을 했다.

경기교통공사는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교통정책 전담기관으로, 현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개소할 예정이다.

교통공사는 31개 시·군의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리, 환승 주차장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신교통수단 운영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경기교통본부는 교통공사 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공사 설립 전까지 운영하는 기구로, 교통공사 설립 준비, 공사수행사업 설계, 준공영제 시범사업 시행 등의 역할을 한다.

경기도시공사의 1개 본부로 운영되며 1본부 2팀 9명으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교통본부 개소식과 함께 내년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19개 시·군,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수입금공동관리 형태의 현재 준공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버스 운영을 위탁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최초 5년에 갱신 4년 등 최대 9년까지 계약을 한 뒤 재입찰을 원칙으로 한정면허를 부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달 중에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16개 노선에 대한 입찰공고를 해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운송사업자를 모집,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16개 노선은 반남 또는 폐선 노선 4개, 소외지역 노선 3개, 택지지구 노선 9개 등이다.

/의정부(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산업] 한화그룹 창립 67주년 김승연 회장의 '가지 않은 길' 시즌 II 06



Life

[바이오] 아산병원팀 폐암 오가노이드 개발 맞춤형 항암제 시대 연다 L2



# 수면부족·피부노화 해결사 20년 연구로 피부시간 '되감기'

아이오페는 지난 1996년 론칭 이후 한국 여성 피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화장품 기술을 선도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대명사로 자리매김 했다. 아이오페가 추구하는 것은 피부 속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피부 스스로 건강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아이오페의 연구원들은 피부를 정확하게 진단 및 연구하고, 피부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소재를 찾아 피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아이오페 '스텝 III 앰플'**

### ◆ '1984 스텝 III'의 부활

아이오페가 지난 3월 1일 출시한 '스텝 III 앰플'은 출시 한 달만에 10만 병이 판매됐다. 이 제품은 1984년에 출시된 브랜드 '스텝 III'를 현대 여성에게 맞게 재해석한 것이다.

브랜드 스텝 III는 식물의 줄기(stem)처럼 피부의 줄기, 즉 피부의 근본 연구를 통해 피부 노화를 케어하는 세 가지 솔루션을 뜻한다. 1980년대 여성들의 피부 고민을 분석해 탄생한 스텝 III는 출시 이후 이례적으로 10년 이상 꾸준히 그 인기를 유지하며 당시 대표적인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아이오페가 스텝 III를 재해석해 선보인 '스텝 III 앰플'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거나, 피부 컨디션 회복이 느리고, 피부 장벽이 약화된 3040대 현대 여성의 근본적인 피부 케어 솔루션으로, ▲피부 진정, ▲집중 안티에이징케어, ▲피부장벽 강화 총 3가지 선순환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이 메커니즘을 실현하기 위한 '스텝 III 앰플'의 핵심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알란토-리포솜™이다. 아이오페는 외부 자극, 건조 등으로 인해 피부가 손상됐을 때 바르는 성분에 주목, '알란토 킴플렉스'를 개발했다. 이 성분을 머리카락 굵기보다 400배 더 미세한 '리포솜' 제형에 담아 피부에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스텝 III 앰플'은 알란토-리포솜™을 78.2% 함유했다. 아이오페는 수면 부족, 피부 노화의 상관관계에 기반한 인체 적용 실험을 통해 탄력, 피부결, 윤기가 개선되는 등 3시간 더 폭 잔 듯한 효과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하이포알러지테스트, 피부과테스트, 안자극대체테스트 등 철저한 사전테스트를 거쳐 예민한 피부도 사용할 수



아이오페랩에서 전문가와 피부 측정 결과를 상담하는 고객.



아이오페랩을 찾은 고객이 피부 상태 측정을 받고 있다.



슈퍼 플랜트 '만년송'이 사용된 아이오페 '슈퍼 바이탈 크림' /아모레퍼시픽

**1984년 출시된 제품 재해석 진정·안티에이징·장벽강화 3040 여성 위한 솔루션 제시**

**아이오페랩서 피부 정밀 측정 피부유전자 연구로 특성 예측**

**생명 메커니즘 연구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 찾아내**

유수분, 탄력, 주름, 지질도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지난 2016년부터는 보다 정밀하게 피부 연구를 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연구를 함께하고 있다. 아이오페는 피부 유전자 연구를 폭 넓게 지속해 온 결과, 타고난 피부의 유전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오페랩에서는 20개의 유전자 마커를 분석해 피부 보습, 탄력, 색소, 항산화, 민감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선천적인 피부 유전적 특성을 예측한다. 나아가 해당 항목을 개선하기 위한 피부 관리 방법과 생활 습관을 제시함으로써 개개인에게 꼭 맞는 솔루션을 제안한다.

### ◆ 탁월한 소재·안전한 기술 '핵심'

피부 측정 결과에 맞춰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성분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아이오페는 적박한 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살아남는 강인한 식물, 즉 '슈퍼 플랜트'에 주목했다.

식물은 한 자리에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극복하기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생존하는 힘을 갖게 되며, 환경이 적박해질수록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한 성분을 생성한다.

아이오페는 '슈퍼 바이탈 크림'에 사용된 만년송, '라이브 리프트 세럼'에 사용된 용설란 등 피부에 탁월한 효능을 제공하는 특별한 소재를 철저히 연구함으로써 더욱 차별화된 고기능성 스킨케어 브랜드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또한, 아이오페는 생명 메커니즘 연구를 기반으로 피부를 생명 그 자체로 연구해 피부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아내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항산화 효소 성분을 재현한 '바이오 리독스' 성분 개발, 크로마토그래피 원리를 활용한 '고농축 성분 추출' 기술, 멜라닌 생성 원인을 감지해 특정 세포만을 찾아내 유효 성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바이오 액티브 타겟' 기술 등이다.

있다. 또한 동물성 원료, 향료, PEG 계면활성제 등 8가지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마일드한 포뮬러가 특징이다.

### ◆ 유전자 분석으로 피부 미래 진단

'스텝 III 앰플'은 20여 년간 이어진 아이오페 기술 연구의 집약체다. 아이오페는 고객에게 꼭 맞는 뷰티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정확한 피부 진단과 실질적인 피부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피부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이어가고 있다.

아이오페 플래그십 스토어 명동점 2층에 위치한 아이오페랩(Lab)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48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자신의 피부 상태를 측정받은 곳이다. 최첨단 기기로 피부의 온도, 색소,

AMOREPACIFIC